

우리말 성조 연구에서 방점 표상과 성조 표상

김 차균

— 차례 —

- | | |
|---------------------------|-------------------------|
| 1. 머리말 | 6. 방점법으로 표기한 대응 |
| 2. 먼저 비교방언학의 방법으로 | 관계 자료 |
| 3. 대립과 중화에 바탕을 둔
성조 체계 | 7. 음운론적 표상의 자연성과
인위성 |
| 4. 음조형 실현의 규칙 | 8. 맺음말 |
| 5. 방점법의 발달 과정 | |

〈버리〉

우리말 성조 방언들의 운율 체계는 세 가지 표상 체계로 적는 것이 가능하다. 가장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표상 체계는 방점 체계로 이것은 대립과 중화의 기능을 표상화한 것이며, 가장 음향학적인 실질과는 먼 형식적인 체계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표면적인 음조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운율 체계이다. 그리고 우리가 발화 행위를 통하여 산출하고 귀로 듣는 음향적인 실질에 가까운 음조 체계는 음운론에서는 가장 표면적인 운율 체계로 이것은 정확하고 정밀하게 표기되어야 하며, 이 체계를 무시한다면 어떠한 성조론도 존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방점 체계와 음조 체계의 중간에 존재하면서 음성학적인 음조의 층위가 아닌 음운론적인 성조론의 층위에 있는 것이 성조 체계이다. 앞의 두 체계는 이상적으로 잘 연구되었을 경우에는 학자들 사이의 차이가 허용되지 않고 통일되어야 하지만, 성조 체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선택한 체계이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성조론을 할 때, 방점 체계→성조 체계→음조 체계처럼 중간 단계를 거칠 수도 있다. 방점 체계→음조 체계처럼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방점 체계에서 직접 음조 체계를 도출할 수도 있다. 이는 중간 단계인 성조 체계는 인위적인 것이어서 본질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말 방언 성조의 진정하고도 통일이 가능한 이론인 방점법임을 소개하는 가운데 위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이해되게 하였다.

주제어: 방점법, 평성, 거성, 상성, 음거성, 음상성,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 음조형 실현 규칙.

1. 머리말

중세 국어는 성조 언어였으며, 현대의 방언들 가운데서도 경남 방언, 경북 방언, 강원도의 태백산맥의 동부 지역 방언, 함남 방언, 함북 방언, 연변 방언들은 높낮이가 말뜻을 분화하는 기능을 가진 성조 방언이다. 전라 방언은 길이를 기준으로 하면 높낮이가 예측되고, 높낮이를 기준으로 하면 길이가 예측되는 방언, 곧 높낮이와 길이가 비기는 방언이라는 점에서 준성조 방언이다.

이리하여 우리말의 운율적인 자질을 알기 위해서는 성조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성조 연구를 하다가 보면 부수적으로 비성조 방언의 운율 분석의 방법론을 터득할 수도 있다. 우리말은 성조 언어에서 비성조 언어로 발전해 온 언어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변별적인 기능을 못 하는 비성조 방언들의 운율 자질에서도 높낮이는 어두에 나타나는 분절음의 종류나 어두 음절의 구조에 따라서 일정한 음조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음조형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데는 성조 방언에서 음조형을 다루는 방법을 원용하면 효과적이다.

현대 음운학의 최신 이론들에서 성조를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어느 이론도 어느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성조 체계(보기를 들면 국어의 방언 성조 체계)를 만족스럽게 다룰 수 있는 이론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 까닭은 높낮이 인식의 근거가 되는 본질적인 표상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존재의 근거가 불명확한 가상적인 존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체계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성조 이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글썽이의 방점법이 우월함을 증명하는 대신에, 방점법이 중세 국어와 현대의 여러 방언의 성조 체계의 본질을 바르게 분석하고 기술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그것이 타당성 있는 성조 이론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고, 이리하여 종래의 여러 음운 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조 표상과 체계는 가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이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2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조 지식과 자료로는 방언지리학적인 접근보다는 비교방언학적인 접근이 성조 체계의 본질에 다가서기에 더 유리하다는 전제를 내세운다.

3장에서는 방점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방점 표상을 높낮이의 표상인 성조 표상으로 옮기는 방법을 설명하며, 4장에서는 성조 표상에서 우리가 귀로 듣고 인식하는 음조 표상을 도출하는 규칙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세종 대왕에서 최 세진을 거쳐서 글썽이에 이르기까지의 성조 이론으로서의 방점법의 발전 과정을 서술한다. 그리고 6장에서는 구체적인 방점 표기 자료를 통해서 방점법의 타당성을 점검한다.

7장에서는 음운론적 층위의 표상인 방점 표상은 성조 인식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성학적인 층위의 표상인 음조 표상은 발화 행위를 통해서 산출되는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분석과 기술의 대상이지만, 그 중간 단계에 있으면서도 음운론적인 층위의 표상인 높낮이 표상(성조 표상)은 각자의 이론 전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존재는 아님을 증명하고, 이리하여 방점 표상에서 직접 음조 표상을 도출하는 2단계의 방법으로 성조 이론을

서울 수도 있고, 방점 표상에서 높낮이 표상을 거쳐서 음조 표상을 도출하는 3단계의 방법으로 이론을 서울 수도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2. 먼저 비교방언학의 방법으로

하나의 언어(여기에서는 국어) 안에서 각각의 방언의 성조 체계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얹혀 있는 모습을 논하며, 이 방언 성조 체계가 중세 국어 또는 국어의 공통 조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단 몇 개의 방언 성조 체계라도 완전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은 항목을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서 연구하는 방언지리학적인 접근보다는 많은 항목을 철저하게 비교하는 비교방언학적인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학사의 처지에서 볼 때 비교언어학은 언어지리학보다 시대적으로 먼저 나타났다. 언어지리학은 계통론적으로 하나의 어족에 속해 있는 여러 언어를 보통 천여 개 안팎의 항목에 대하여 그것이 지리적으로 펼쳐져 있는 분포를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시작되고, 방언지리학은 언어지리학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되 하나의 언어 안에서 그것에 속해 있는 방언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방언지리학적인 방법으로 우리말의 방언을 연구할 때는 어휘 체계, 어법 체계, 의미 체계, 분절음 체계, ... 들과 더불어 성조에 대해서 수십 개 항목에서 많아도 수백 개 정도의 항목에 대한 지리적인 분포를 다루게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분야는 이미 많은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대

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성조 연구에서는 각 성조 방언들의 기본적인 성조 체계가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언지리학적인 방법으로 소수의 음조형에 바탕을 둔 성조 항목을 다루는 것은 성조 체계에 대한 올바른 지리적인 이해와 해석에 이르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성조 연구 수준에서는 비교언어학적인 방언학 곧 비교방언학적인 방법으로 전국의 여러 방언들에 대해서 각각 20,000여 개 이상의 충분한 자료를 연구하여 성조 체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리하여 충분한 자료가 쌓인 다음에 방언지리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글쓴이가 주장하는 비교방언학은 지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방언지리학과 다르고 비교언어학과 닮았지만, 차용어나 외래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교언어학과는 다르고 오히려 전통적인 방언지리학과 닮았다.

3. 대립과 중화에 바탕을 둔 성조 체계

3.1. 유형론에 대한 반성과 성조형 체계

20세기 기술언어학 시대의 성조론의 대가인 Kenneth L. Pike (1948)에 따라 중세 국어나 현대 국어 성조 방언들을 진정한 성조 언어로 보지 않고, 단어 음조 체계(Word-pitch system)나 구 음조 체계(Phrase-pitch system)라고 보거나 일본어처럼 음조 악센트 체계(Pitch accent system)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말의 성조 체계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 그러한 유형론적인 분류 속에 우리말을 집어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20세기 전반의 수준에서 나온 성조 체계의 유형론에 매이지 말고, 높낮이가 낱말의 뜻을 분화하는 변별적인 기능을 하면 모두 진정한 성조 언어라고 보면 여러 가지 성조 체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성조 방언들도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성조 언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우리말에는 성조들이 약하든 강하든 모두가 중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어와 차이가 있다. 다음의 자료에서 화살표 왼쪽의 기저 표상을 보면 기저에서는 체계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성조 연결이라도 다 허용되고 있어서 우리말도 중국어와 다름없는 성조 언어임을 알 수 있다. 더 긴 자료도 제시할 수 있지만, 2음절과 3음절로 된 합성어에 한정하기로 한다.

(1) 창원 방언의 대립 및 중화 자료

기저 방점 표상	최종 방점 /성조/[음조] 표상
ㄱ. /발·골HL, 발·풀HM/ /천·세:손, 산·새:알, 발·일꾼/ /노·랫:말, 삼·십·일, 삼·십년/ /삼천:만, 삼천·석/ /꽃발/ /삼천년/ ㄴ. /·물:새, ·쌀·밥, ·쌀술/ /·십:세:손, ·물:새:알, ·십:만년/ /·해:찬·들, ·코·뿔:소, ·십·일년/ /·일년:산, ·백년:객, ·일천년/ ㄷ. /:들·일, :들·소, :들·꽃/ /:돈·계:산, :일·벌·때, :계:산전/ /:오·백:만, :일·숨·씨, :돈·육·십/ /:벨·똥:벨, :개·꼬·리, :개·똥·발/	→ 발·골, 발·풀/HM/[HM] → 천·세:손, 산·새:알, 발·일·꾼/HM ² /[HM ²] → 노·랫:말, 삼·십·일, 삼·십·년/HM ² /[HM ²] → 삼천·만, 삼천·석/H ² M/[MHM] → 꽃발/H ² /[MH] → 삼천년/H ³ /[MHH/MMH] → ·물:새, ·쌀·밥, ·쌀·술/M ² /[HH/MM] → ·십·세:손, ·물:새:알, ·십·만·년/M ³ /[HHM] → ·해·찬·들, ·코·뿔:소, ·십·일·년/M ³ /[HHM] → ·일·년·산, ·백·년·객, ·일·천·년/M ³ /[HHM] → :들·일, :들·소, :들·꽃/L ² /[LM] → :돈·계·산, :일·벌·때, :계·산·전/L ³ /[LM ²] → :오·백·만, :일·숨·씨, :돈·육·십/L ³ /[LM ²] → :벨·똥·벨, :개·꼬·리, :개·똥·발/L ³ /[LM ²]

위에서 기저 방점 표상에서 /□, ·□, :□/을 각각 /H, M, L/로 바꾸면 기저 성조 표상이 되므로 첫 두 낱말만 기저 성조 표상을 적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생략했다. 위에서 (1)ㄱ의 끝 두 낱말 /꽃밭/과 /삼천년/만 중화가 안 일어난 보기이다. 중화된 후의 표상인 화살표 오른쪽 표상을 잘 관찰해 보면, 최종 방점 표상은 2음절의 경우는 /:□·□/, /·□·□/, /□·□/, /□□/의 네 가지뿐이며, 이들을 성조형과 음조 표시로 바꾸면 각각 /L²/[LM], /M²/[HH/MM], /HM/[HM], /H²/[MH]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3음절의 경우는 /:□·□·□/, /·□·□·□/, /□·□·□/, /□□·□/, /□□□/의 다섯 가지뿐이며, 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성조형과 음조 표시로 바꾸면 각각 /L³/[LMM], /M³/[HHM], /HM²/[HM²], /H²M/[MHM], /H³/[MHH/MMH]가 된다.

분절음의 중화를 예시함으로써 음운론에서 중화의 본질과 그 중요성을 알아 보기로 하자.

- (2) 《XV—만》의 위치에서 /ㄷ, ㅌ, ㄴ, ㅈ, ㅊ, ㄴ/은 [ㄴ]으로 중화된다.¹⁾

대립과 중화의 보기를 들어 중화의 효력을 먼저 이해하기로 하자.

- (3) 대립(낱말 또는 음절의 첫 소리 위치)

기저 표시	표면 표시
/당/	[당]
/탕/	[탕]
/상/	[상]

1) 엄격하게 말하면 /ㄷ, ㅌ, ㄴ, ㅈ, ㅊ/부터 [ㄷ]으로 내파음화된 다음 다시 [ㄷ]과 /ㄴ/이 [ㄴ]으로 중화된다.

/장/	[장]
/창/	[창]
/냥/	[냥]

(4) 중화(낱말 또는 음절의 끝 소리 위치)

기저 표시	표면 표시
/남만/	[남만]
/날만/	[남만]
/낫만/	[남만]
/낮만/	[남만]
/낯만/	[남만]
/난만/	[남만]

어두(/#—VX/의 위치)에 오는 /ㄷ, ㅌ, ㅅ, ㅈ, ㅊ, ㄴ/은 [ㄷ, ㅌ, ㅅ, ㅈ, ㅊ, ㄴ]으로 발음됨을 (3)에서 볼 수 있지만, /ㄹ/ 앞의 위치(/V—ㄹ VX/의 위치)에서는 /ㄷ, ㅌ, ㅅ, ㅈ, ㅊ, ㄴ/이 모두 [ㄴ](=[n])으로 중화됨을 (4)에서 확인할 수 있다.²⁾

성조론에서도 중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성조론에서 중화를 중화로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확산(spreading)의 일종으로 잘못 처리하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다. 다른 대부분의 우리말 성조 방언과 마찬가지로 창원 방언과 안동 방언에서 하나의 운율적 낱말 안에서³⁾ 거성(·□)이나 상성(□) 뒤에서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2) [ㄴ](=[n])은 다시 뒤따르는 /ㄹ/[m]에 강도 동화(=조음 위치 동화)되어 [ㄹ](=[m])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

3) 운율적 낱말은 하나의 음조형으로 나타나는 말토막(utterance)이다. 운율적 낱말은 분절 음운론에서는 음운론적 낱말(phonological word)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들의 대다수는 허 웅(1970)의 어절과 같은 것이지만, 때로는 어절보다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어절보다 더 큰 마디(phrase)나 월(sentence)이 될 수도 있으며, 드물게는 월보다 더 큰 것이 될 수도 있다. 운율적 낱말은 문법적인 단위(unit)와 우연히 일치할

중화된다.⁴⁾

(5) 창원 방언

#·물# /M/[M]
 #마·신·다# /HM²/[HM²] ·물+마·신·다→·물·마·신·다 /M⁴/[HHM²]
 #먹는·다# /H²M/[MHM] ·물+먹는·다→·물·먹·는·다 /M⁴/[HHM²]
 #팔·더·라# /M³/[HHM] ·물+·팔·더·라→·물·팔·더·라 /M⁴/[HHM²]
 #사·마·구# /L³/[LMM] ·물+·사·마·구→·물·사·마·구 /M⁴/[HHM²]

(6) 안동 방언

#·물# /M/[M]
 #마·신·다# /HM²/[HM²] ·물+마·신·다→·물·마·신·다 /M⁴/[HHM²]
 #먹는·다# /H²M/[MHM] ·물+먹는·다→·물·먹·는·다 /M⁴/[HHM²]
 #팔·드·라# /M³/[HHM] ·물+·팔·드·라→·물·팔·드·라 /M⁴/[HHM²]
 #사·마·구# /M³/[HHM²] ·물+·사·마·구→·무·사·마·구 /M⁴/[HHM²]
 #답·간·다# /L³/[LM²] ·물+·답·간·다→·물·나·간·다 /M⁴/[HHM²]

창원 방언과 안동 방언을 포함하는 우리말의 모든 성조 방언에 두루 적용되는 성조의 중화 규칙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7) 성조의 중화 규칙(모든 성조 방언에서)

- ㄱ. 《□ — 》의 환경에서 □(평성) 이외의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 ㄴ. 《{·□, :□, ·回, :回} — 》의 환경에서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규칙 (7)ㄱ 곧 평성 뒤에서 평성 이외의 모든 성조가 측성으로 중화되는 보기는 (8)과 같고, (9)는 중화가 일어나지 않고 평

수도 있지만, 실제의 발화 상황에서 보면 운율적인 구는 문법적인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치하는 경우보다 더 잦다.

- 4) 운율적인 낱말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상성과 거성의 대립은 불가능하다. 이런 위치에 나타나는 1점(·□)을 측성이라 한다. 측성은 상성과 거성의 상위 범주의 이름으로도 사용된다.

성 뒤에서 평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보기이다.

(8) 창원 방언(상성과 거성이 평성 뒤에서 중화된다.)

/가실H ² #·구·름M ² /	→/가실·구·름/	/H ² M ² /[MHM ²]
/소굼H ² #·장·사M ² /	→/소굼·장·사/	/H ² M ² /[MHM ²]
/가을H ² #·채·소L ² /	→/가을·채·소/	/H ² M ² /[MHM ²]
/삼한H ² #·사·온L ² /	→/삼한·사·온/	/H ² M ² /[MHM ²]

(9) 창원 방언(평성 뒤에서 평측형은 방점의 변동이 없다.)

/나무H ² #송군·다H ² M/	→/나무송군·다/	/H ⁴ M/[MH ³ M]
/나물H ² #먹는·다H ² M/	→/나물먹는·다/	/H ⁴ M/[MH ³ M]
/술H#먹는·다H ² M/	→/술먹는·다/	/H ³ M/[MH ² M]
/술H#마·신·다H ² M/	→/술마·신·다/	/H ² M ² /[MHM ²]
/팔H#다리H ² /	→/팔다리/	/H ³ /[MH ²]

평성은 평성을 제외한 성조들을 측성(·□)으로 중화시키기고, 상성과 거성(방언에 따라서는 상성, 거성, 음상성, 음거성)은 모든 성조를 측성(·□)으로 중화시킨다. 따라서 평성은 약한 중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상성과 거성(방언에 따라서는 상성, 거성, 음상성, 음거성)은 강한 중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⁵⁾

평성의 약한 중화 기능과 측성의 강한 중화 기능으로 말미암아 최종 방점형(따라서 최종 성조형)의 층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점 연결의 방법(=방점형)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5음절어에 한하여 창원·밀양·고성 방언의 방점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창원·밀양·고성 방언 5음절 어절의 방점 표상

	보통의 표시법	간략 표기법
ㄱ. 평측형	□·□·□·□·□	□·□ ⁴

5) 2성조 방언에서는 성조는 중화 기능이 없느냐 있느냐로 구분되는데, 평성(□)은 중화 기능이 없고, 측성(·□)은 중화 기능이 있다.

	$\square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square^2 \cdot \square^3$
	$\square \square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square^3 \cdot \square^2$
	$\square \square \square \square \cdot \square$	$\square^4 \cdot \square$
	$\square \square \square \square \square$	\square^5
ㄴ. 거성형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5$
ㄷ. 상성형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square^5$

표 (10)에서 5음절어의 경우 평측형은 5 가지, 거성형과 상성형은 각각 한 가지이다. 이런 방법으로 표를 만들어 보면, 6음절어의 경우는 평측형은 6 가지, 거성형과 상성형은 각각 한 가지이고, n음절어의 경우는 평측형은 n 가지이고 거성형과 상성형은 각각 한 가지임을 알 수 있다.

거성형과 상성형은 합쳐서 측성형이라 부른다. 표 (10)에서 간략 표기법은 방점의 어깨에 평성의 수와 측성의 수를 적은 것인데, 평측형의 다섯째 표상 \square^5 는 평성만 5개이므로 더 하위 분류하면 평성형이라 부를 수도 있으나, 이것을 평측형에 넣어 놓은 것은 \square^5 가 $\square^5 \cdot \square^0$ (평성 5개, 측성 0개)와 같기 때문이다. 순행평성동화 등의 여러 가지 성조 변동 현상에서 \square^5 는 평측형의 하위 구성원에 들어가는 것임이 밝혀졌다(김 차균 2003).

(10)ㄴ을 간략 표시법으로 $\cdot \square^5$ 로 적은 것은 당연히 보이지만, (10)ㄷ을 $:\square \cdot \square^4$ 로 적지 않고 $:\square^5$ 로 적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글쓴이는 (10)ㄱ~ㄷ을 평성과 측성의 수를 적은 것이지, 평성과 거성 및 상성으로 구분하여 적은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10)ㄴ과 (10)ㄷ은 둘 다 측성이 5개이기 때문에 위첨자를 5로 적은 것이다. 다만 측성형이 3성조 방언에서는 두 종류이기 때문에 거성으로 시작되는 측성형(=거성형)은 $\cdot \square^5$ 로, 상성으로 시작되는 측성형(=상성형)은

:□⁵으로 적은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성조형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성조의 중화가 일어나는 위치이며, 상성과 거성의 대립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 표시에서 적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⁶⁾

어떤 언어이건 초기의 음운 분석 과정에서는 대립은 가장 중요한 음운 분석 원리이며, 이 경우 최소대립쌍(최소대립어, minimal pair)을 찾게 된다. 분절음의 연쇄체가 같을 때 /·□·□·□·□/과 /□·□·□·□/은 첫 음절의 성조만 거성과 평성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최소대립어이다. 그러나 /·□·□·□·□/과 /□□·□·□/은 최소대립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과 /:□·□·□·□/은 첫 음절이 거성과 상성으로 대립하고 다른 음절은 같기 때문에 최소 대립어이며, /:□·□·□·□/과 /□·□·□·□/도 첫 음절이 상성과 거성의 대립을 보이며 다른 음절은 같으므로 최소대립어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경남 방언의 하나인 창원 방언의 세 낱말 /이·사/[HM](醫師), /이·사/[LM](理事), /이·사/[MH](移徙) 가운데서 /이·사/[HM](醫師)와 /:이·사/[LM](理事)는 /□·□/와 /:□·□/의 관계이므로 최소대립어이고, /이·사/[HM](醫師)와 /이·사/[MH](移徙)도 /□·□/와 /□□/의 관계이므로 최소대립어이다. 그러나 /:이·사/[LM](理事)와 /이·사/[MH](移徙)는 /:□·□/와 /□□/의 관계이므로 최소대립어가 아니다.

표 (10)에서 최소대립어를 골라 들썩 짝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

(11) 창원·밀양·고성 방언 최소대립쌍

6) 같은 이유로 5음절 음거성형은 ·□⁵로, 5음절 음상성형은 :□⁵로 적는다.

ㄱ. □·□·□·□·□	ㅁ. ·□·□·□·□
□ □·□·□·□	□·□·□·□·□
ㄴ. □ □·□·□·□	ㅂ. :□·□·□·□·□
□ □ □·□·□	□·□·□·□·□
ㄷ. □ □ □·□·□	ㅅ. ·□·□·□·□·□
□ □ □ □·□	:□·□·□·□·□
ㄹ. □ □ □ □·□	
□ □ □ □ □	

표 (11)을 잘 검토해 보면 최종 방점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2) 최종 방점형에서 대립과 중화

- ㄱ. 어두에서는 평성, 상성, 거성이 대립한다.
- ㄴ. 평성과 측성이 섞여 있는 경우 평성은 반드시 측성을 앞선다.
- ㄷ. 평성 뒤에서 상성, 거성은 측성(1점, ·□)으로 중화된다.
- ㄹ. 두 번째 이하의 측성 위치는 중화의 위치이다.

젊은 국어 성조학자들 중에는 경남 남부 방언들에서 [LM]과 [LH]의 표면적인 대립의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조 체계는 /L/과 /H/의 2성조 체계이며, /L/, /M/, /H/의 3성조 체계가 아니라고 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글쓴이를 포함하는 3성조론자의 /:이·사/[LM](理事)와 /이사/[MH](移徙)는 둘 다 /LH/라는 것이며, /:이·사/(理事)를 [LM]로 듣고, /이사/(移徙)를 [MH]로 듣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사/(理事)에서 둘째 음절 위치는 중화의 위치이기 때문에 [L]과 [H]는 나타날 수가 없고 오직 [M]만 나타나는 것이다. /:이·사/(理事)에서 둘째 음절에 [L]이나 [H]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말에서 /V—□VX/의 환

경에 [ㄷ, ㅌ, ㅊ, ㅌ, ㅌ]이 발음되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헛 일을 하는 것이다. 경남 방언이 왜 3단 3성조 방언인가에 대한 더 계속적인 논의는 김 세진(2004)을 참조하기 바란다.

3.2. 성조와 성조형의 대응 관계와 성조 층위의 표상

대립과 중화에 바탕한 방점법으로 성조를 적으면, 국어의 모든 방언을 같은 표상으로 적을 수 있지만, 높낮이가 중심이 되는 성조 표상은 방언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몇 개 방언을 방점과 성조의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 성조 대응 관계

성조 분류		중세 국어	고성·밀양·창원	대구·성주·안동
평성		가장 낮은 음조 /L/ □	고 /H/ □	고 /H/ □
측성	거성	가장 높은 음조 /H/ ·□	중 /M/ ·□	저 /M/ ·□
	상성	높아 가는 음조 /R/ :□	저: /L/ :□	저: /M/ :□

성조 분류	울진·삼척	강릉 방언	대구(20대)	북청·육진·릉정
평성	고 /H/ □	고 /H/ □	고 /H/ □	저 /M/ □
측성	거성	저 /M/ ·□	저 /M/ ·□	고 /H/ ·□
	상성	고: /H/ :□		

표 (11)과 같은 방법으로 몇 개 방언의 방점형을 적고, 그 오른쪽 옆에 성조형을 붙여 적으면 다음과 같다. 맞는 방점형이 없으면 ○표를 한다.

(14) 창원·밀양·고성 방언 5음절 어절의 방점 표상

	보통의 표시법	간략 표기법	창원 방언	밀양 방언	고성 방언
ㄱ. 평측형	□·□·□·□·□	□·□ ⁴	HM ⁴	HM ⁴	HM ⁴
	□□·□·□·□	□ ² ·□ ³	H ² M ³	H ² M ³	H ² M ³
	□□□·□·□	□ ³ ·□ ²	H ³ M ²	H ³ M ²	H ³ M ²
	□□□□·□	□ ⁴ ·□	H ⁴ M	H ⁴ M	H ⁴ M
	□□□□□	□ ⁵	H ⁵	H ⁵	H ⁵
ㄴ. 거성형	·□·□·□·□·□	·□ ⁵	M ⁵	M ⁵	M ⁵
ㄷ. 상성형	:□·□·□·□·□	:□ ⁵	L ⁵	L ⁵	L ⁵
ㄹ. 음거형	·□·□·□·□·□	·□ ⁵	○	○	○
ㅁ. 음상형	:□·□·□·□·□	:□ ⁵	○	○	□ ⁵

(15) 안동·대구·성주 방언 5음절 어절의 방점 표상

	보통의 표시법	간략 표기법	안동 방언	대구 방언	성주 방언
ㄱ. 평측형	□·□·□·□·□	□·□ ⁴	HM ⁴	HM ⁴	HM ⁴
	□□·□·□·□	□ ² ·□ ³	H ² M ³	H ² M ³	H ² M ³
	□□□·□·□	□ ³ ·□ ²	H ³ M ²	H ³ M ²	H ³ M ²
	□□□□·□	□ ⁴ ·□	H ⁴ M	H ⁴ M	H ⁴ M
	□□□□□	□ ⁵	H ⁵ (=H ⁵ M ⁰)	H ⁵	H ⁵
ㄴ. 거성형	·□·□·□·□·□	·□ ⁵ M ⁵	M ⁵	M ⁵	
ㄷ. 상성형	:□·□·□·□·□	:□ ⁵ M ⁵	M ⁵	M ⁵	
ㄹ. 음거형	·□·□·□·□·□	·□ ⁵	L ⁵	L ⁵	L ⁵
ㅁ. 음상형	:□·□·□·□·□	:□ ⁵	○	○	○

(16) 울진·삼척·강릉 방언 5음절 어절의 방점 표상

	보통의 표시법	간략 표기법	울진 방언	삼척 방언	강릉 방언
ㄱ. 평측형	□·□·□·□·□	□·□ ⁴	HM ⁴	HM ⁴	HM ⁴
	□□·□·□·□	□ ² ·□ ³	H ² M ³	H ² M ³	H ² M ³
	□□□·□·□	□ ³ ·□ ²	H ³ M ²	H ³ M ²	H ³ M ²
	□□□□·□	□ ⁴ ·□	H ⁴ M	H ⁴ M	H ⁴ M
	□□□□□	□ ⁵	H ⁵ (=H ⁵ M ⁰)	H ⁵	H ⁵
ㄴ. 거성형	·□·□·□·□·□	·□ ⁵	M ⁵	M ⁵	M ⁵
ㄷ. 상성형	:□·□·□·□·□	:□ ⁵	H ⁵	H ⁵	R ⁵
ㄹ. 음거형	·□·□·□·□·□	·□ ⁵	□ ⁵	L ⁵	L ⁵
ㅁ. 음상형	:□·□·□·□·□	:□ ⁵	M ⁵	M ⁵	○

위의 표들에서는 5음절 어절에 한정하여 그 방점형(따라서 성조형)을 열거하고 있지만, 음절의 수가 줄어들어도, 늘어나도 기본적인 성조형이 평측형($\square_1 \cdot \square^n$), 거성형($\cdot \square_1$), 상성형(\square_1)(그리고 방언에 따라서는 음거형($\cdot \square_1$), 음상형($\cdot \square_1$)의 종류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다만 평측형의 경우는 음절의 수에 비례해서 그 하위 구성원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수가 증가한다.⁷⁾ 창원 방언, 밀양 방언, 고성 방언, 안동 방언, 대구 방언, 성주 방언, 울진 방언에서는 다 같이 2음절 어절이면 평측형은 2가지, 3음절 어절이면 평측형은 3가지, 4음절 어절이면 평측형은 4가지, 5음절 어절이면 평측형은 5가지, n음절 어절이면 평측형은 n가지로 나타난다.

삼척 방언과 강릉 방언의 방점형(따라서 성조형)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표 (16)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삼척 방언에서 거성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으나,⁸⁾ 2음절 이상의 거성형($\cdot \square_2$)과 평성 2개와 측성 0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평측형($\square^2 \cdot \square_0$)의 음조형이 다음에 말할 음조형 실현 규칙 (23)ㄱ, ㄴ으로 말미암아 둘 다 $[MHM_0]$ 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2음절 이상의 거성형의 존재 바탕이 흔들리게 되었다. 둘의 발음이 같음을 파타내기 위하여 아래의 삼척 방언의 (17)ㄱ②와 (17)ㄴ을 그들 속에 두었다.⁹⁾ 그리고 강릉 방언에서는 음거형과 음상형의 존재를 제외하고 설

7) 음거형의 기저 성조에 대한 논의는 박 숙희(2003)를 참조.

8) /손+이/(客)→/손·이 $HM/[HM]$, /·손+이/(手)→/·손·이 $M^2/[MH]$; /잡+고/→/잡·고 $HM/[HM]$, /·참+고/(手)→/·참·꼬 $M^2/[MH]$, 등의 대립은 거성의 존재를 부인하고서는 그 설명이 불가능하다.

9) /꽃병·버·팁, $H^2M^2/[MHM^2]$ 와 /·쌀·밥·버·팁, $M^4/[MHM^2]$ 는 그 음조형이 둘 다 $[MHM^2]$ 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꽃·도, $HM/[HM]$ 과 /·쌀·도, $M^2/[MH]$; /꽃·버·팁, $HM^2/[HM^2]$ 와 /·쌀·버·팁, $M^3/[MHM]$ 등의 구별을 위해서는 거성형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명하면, 2음절 이상 성조형은 상성형($:\square \cdot \square_i$), 평측형($\square \cdot \square_i$), 합류 자유 변동형($\square \square X / \cdot \square \cdot \square X$)으로 재편성이 거의 끝나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글쓴이에게 관찰된 강릉 동해안 방언 전체에서 2음절 이상의 거성형과 $\square^2 \cdot \square_0$ 형의 평측형은 첫 두 음절이 [MH]으로 발음되고 또한 아래의 (17)ㄱ③④⑤형의 첫 두 음절의 발음도 [MH]로 나타난다. 강릉 방언에서는 (17)ㄱ②③④⑤형과 (17)ㄴ형의 첫 두 음절이 [MH]로 발음되는 물론이고 어절 전체의 음조형이 $[MH_1M^n]$ (단, $n \geq 0$)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한 셋째 음절 이하의 음절이 [H]로 발음되든 [M]으로 발음되든 상관 없다. 이리하여 강릉 방언에서 셋째 음절 이하에 그늘 표시가 있는 모든 성조형은 그 방점에 관계없이 3음절어의 경우 [MHM]과 [MHH]로 자유 변동하고, 4음절어의 경우 [MHMM], [MHHM], [MHHH]로 자유 변동하며, 5음절어의 경우 [MHMMM], [MHHMM], [MHHHM], [MHHHH]로 자유 변동한다.¹⁰⁾ n음절의

10) 강릉 방언의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ㄱ. 귀뚜·래·미·버·텀 | /H ² M ⁴ /[MHMMM] |
| 귀뚜래·미·버·텀 | /H ³ M ³ /[MHHMM] |
| 귀뚜래미·버·텀 | /H ⁴ M ² /[MHHHM] |
| 귀뚜래미버·텀 | /H ⁵ M/[MHHHM] |
| 귀뚜래미버텀 | /H ⁶ /[MHHHH] |
| ㄴ. 맨들·더·래·두 | /H ² M ³ /[MHMMM] |
| 맨들더·래·두 | /H ³ M ² /[MHHMM] |
| 맨들더래·두 | /H ⁴ M/[MHHHM] |
| 맨들더래두 | /H ⁵ /[MHHHH] |
| ㄷ. ·구·룸·배·께 | /M ⁴ /[MHMM] |
| 구룸·배·께 | /H ² M ² /[MHMM] |
| 구룸배·께 | /H ³ M/[MHHM] |
| 구룸배께 | /H ⁴ /[MHHH] |
| ㄹ. ·주·더·래·두 | /M ⁴ /[MHMM] |
| 주더·래·두 | /H ² M ² /[MHMM] |
| 주더래·두 | /H ³ M/[MHHM] |
| 주더래두 | /H ⁴ /[MHHH] |

경우도 이에 준해서 그 음조형의 자유 변동을 그려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 방언의 자료 (17)ㄱ②③④⑤ 형과 (17)ㄴ형의 자료에 무의미한 듯한 방점을 찍어 놓은 것은 현지 방언 조사에서 나타나는 자료를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강원 동해안 방언의 성조 체계에 대한 완벽한 기술은 저서로 발표하기로 하고, 이 논문에서는 이상 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17) 울진·삼척·강릉 방언 5음절 어절의 방점 표상

	울진 방언	삼척 방언	강릉 방언
ㄱ. 평측형			
①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 □ □
ㄴ. 거성형	·□·□·□·□·□	·■·■·■·■·■	·■·■·■·■·■
ㄷ. 상성형	:□·□·□·□·□	:□·□·□·□·□	:□·□·□·□·□

첨자를 써서 위와 같은 방점형과 성조형을 일반화하여 대응 관계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18) 성조형의 대응 관계(괄호 안은 방점형)

성조형 방언	측성형		평측형
	상성형	거성형	
밀양·창원·고성 방언	L_1 (:□ ₁)	M_1 (·□ ₁)	H_1M^n (□ ₁ ·□ ⁿ)
안동·대구·성주 방언	\underline{M}_1 (:□ ₁)	M_1 (·□ ₁)	H_1M^n (□ ₁ ·□ ⁿ)
울진 방언	\breve{H}_1 (:□ ₁)	M_1 (·□ ₁)	H_1M^n (□ ₁ ·□ ⁿ)
삼척 방언	\breve{H}_1 (:□ ₁)	\underline{M}_1 (·□ ₁), H^2M_1 (□ ² ·□ ₁), H_1M^n (□ ₁ ·□ ⁿ)	
강릉 방언	R_1 (:□ ₁)	HM_1 (□·□ ₁), \underline{M}_1 (·□ ₁), H_2M^n (□ ₂ ·□ ⁿ)	
20대 대구 방언	H_0M^n (□ ₀ ·□ ⁿ)		
북청·육진·룡정 방언	M_0H^n (□ ₀ ·□ ⁿ)		

(19) 일반항의 대응 관계(괄호 안은 방점항)

방언 \ 성조형	측성형		평측형
	상성형	거성형	
밀양·창원·고성 방언	L^n ($:\square^n$)	M^n ($\cdot\square^n$)	$H^m M^n$ ($\square^m \cdot \square^n$)
안동·대구·성주 방언	\dot{M}^n ($:\square^n$)	M^n ($\cdot\square^n$)	$H^m M^n$ ($\square^m \cdot \square^n$)
울진 방언	\ddot{H}^n ($:\square^n$)	M^n ($\cdot\square^n$)	$H^m M^n$ ($\square^m \cdot \square^n$)
삼척 방언	\dot{H}^n ($:\square^n$)	$\dot{M}^n(\cdot\square^n), H^2 M^n(\square^2 \cdot \square^n), H^m M^n(\square^m \cdot \square^n)$	
강릉 방언	R^n ($:\square^n$)	$HM^n(\square \cdot \square^n), \dot{M}^n(\cdot\square^n), H_2 M^n(\square_2 \cdot \square^n)$	
20대 대구 방언	$H^m M^n$ ($\square^m \cdot \square^n$)		
북청·육진·룡정 방언	$M^m H^n$ ($\square^m \cdot \square^n$)		

20대 대구 방언, 룡정 방언과 육진 방언처럼 성조가 평성과 측성 둘뿐인 방언에서는 방점형은 $\square_0 \cdot \square^n$ 하나뿐이다. 따라서 20대 대구 방언에서 성조형은 $/H_0 M^n/$ 하나로 충분하고, 룡정 방언과 육진 방언에서는 성조형이 $/M_0 H^n/$ 하나로 충분하다.¹¹⁾

11) 일본 도쿄(Tokyo) 방언은 우리말의 함남 북청 방언이나 함북 육진 방언과 같이 성조가 평성(unmarked tone)과 측성(marked tone)의 둘뿐이므로, 평성을 $L(\square)$ 로 측성을 $H(\cdot\square)$ 로 표시하면, 성조의 일반항은 $L^m H^n$ (일반형으로는 $L_0 H^n$) 하나로 충분하다. 성조형을 평판형, 두고형, 중고형, 미고형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L^m H^n$ 에서 $m \geq 1$ 이고, $n=0$ 이면 $L^m H^n = L_1 H^0 = L_1$ 로 평판형이 되고; $m=0$ 이고, $n \geq 1$ 이면 $L^m H^n = L^0 H^n = H_1$ 로 두고형이 되며; $m \geq 1$ 이고, $n=1$ 이면 $L^m H^n = L_1 H$ 로 미고형이 되며; $m \geq 1$ 이고, $n \geq 2$ 이면 $L^m H^n = L^m H_2$ 로 중고형이 된다. 도쿄 방언의 음조형 실현 규칙은 ① $L_2 \rightarrow [LH_1]/\# - (H_1)$ (평성형 규칙)과 ② $H_2 \rightarrow [MH_1]/(L_1) - \#$ (측성형 규칙)의 둘이 있다. 지금까지의 일본어의 성조 이론들에서는 평판형(L_1)과 미고형($L_1 H$)을 구별해서 적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보기를 들어 5박자 평판형과 미고형은 우리의 방법으로는 $/L^5/$ 와 $/L^4 H/$ 로 구별되며, 앞의 것은 규칙①에 의하여 $[LH^4]$ 로 되며, 뒤의 것도 규칙①에 의하여 $(/L^4 H \rightarrow [LH^3 H](=[LH^4]))$ 로 결국 같은 발음이 된다. 도쿄 방언의 중화 규칙은 ③ $\langle \square \rightarrow \square \cdot \square - \rangle$ 로 나타낼 수 있다. 보기를 들어 $\square \square \cdot \square$ ($L^2 H$)형의 명사에 \square 형의 토씨가 연결되면 중화 규칙③에 의하여 $\square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L^2 H^2$)로 도출되며, 전반부(L^2)는 규칙①에 의하여 LH 로, 후반부(H^2)는 규칙②에 의하여 HL 로 되어 $(\square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L^2 H^2))$

4. 음조형 실현의 규칙

우리말에서 /나비/와 /노래/는 각각 그대로 [나비]와 [노래]로 발음되지만, /쟈네/, /얏는다/, /국론/은 각각 음운 규칙을 받아서 [갸네], [안는다], [궁논]으로 발음되는 것처럼, 성조형들 가운데서 다수가 음조형을 실현하는 규칙 곧 음조형 실현 규칙에 의하여 성조 표상과는 다른 꼴로 발음되고, 일부는 규칙을 받지 않고 같은 꼴로 발음된다. 이제 창원·김해 방언, 안동·성주·대구 방언, 울진 방언, 삼척 방언, 룡정 방언의 음조형 실현 규칙을 제시한다.

(20) 창원·김해 방언의 음조형 실현 규칙

- ㄱ. /L₂/ → [LM₁]/#—#
- ㄴ. /M₂/ → [HHM₀]/#—#
(단, 정보초점이 아니면 /MM/은 [MM])
- ㄷ. /H₂Mⁿ/ → [MH₁Mⁿ/M₁HMⁿ]/#—#

(21) 안동·성주·대구 방언의 음조형 실현 규칙

- ㄱ. 평측형 H₂Mⁿ→[M₁HMⁿ/MH₁Mⁿ]/#(#)—#(#)
- ㄴ. 거성형 M₂→[HHM₀]/#(#)—#(#)
(단, 정보 초점이 아니면 M²→[MM])
- ㄷ. 상성형 I M₂→[ḤHM₀]/#(#)—#(#)

→LH HL→)[LHHL]로 도출된다. 그러나 평판형 □□□(L³)형의 명사에 □형의 토씨가 연결되면 중화 규칙③을 받지 않고 당연 규칙(default rule)에 의하여 평판형 □□□□(L⁴)로 도출되며, 이것은 다시 규칙①에 의하여 [LHHH]로 도출된다. 또 평판형 □□□(L³)형의 명사에 ·□형의 토씨가 연결되면 당연 규칙(default rule)에 의하여 미고형 □□□·□(L³H)로 도출되며, 이것은 다시 규칙①에 의하여 ([LHH H]=)[LHHH]로 도출된다. 이리하여 박자수가 같은 평판형과 미고형은 표면적으로 같은 음조형이 된다.

(단, 정보 초점이 아니면 $M^2 \rightarrow [MM]$)

ㄹ. 상성형 II $M_2 \rightarrow [\text{MH}M_0]/\#(\#) - \#(\#)^{12)}$

(22) 울진 방언의 음조형 실현 규칙

ㄱ. 평측형 $H_2M^n \rightarrow [M_1HM^n/MH_1M^n]/\#(\#) - \#(\#)$

ㄴ. 거성형 $M_2 \rightarrow [HHM_0]/\#(\#) - \#(\#)$

(단, 정보 초점이 아니면 $M^2 \rightarrow [MM]$)

ㄷ. 상성형 $\dot{H}_2 \rightarrow [\dot{H}M_1]/\#(\#) - \#(\#)$

(23) 삼척 방언의 음조형 실현 규칙

ㄱ. 평측형 $H_2M^n \rightarrow [M_1HM^n/MH_1M^n]/\#(\#) - \#(\#)$

ㄴ. 거성형 $M_2 \rightarrow [MHM_0]/\#(\#) - \#(\#)$

ㄷ. 상성형 I $\ddot{H}_2 \rightarrow [\ddot{H}M_1]/\#(\#) - \#(\#)$

ㄹ. 상성형 II $\ddot{H}_2 \rightarrow [RM_1]/\#(\#) - \#(\#)^{13)}$

(24) 강릉 방언의 음조형 실현 규칙

ㄱ. 평측형 $H_2M^n \rightarrow [MH_1M^n/M_1HM^n]/\#(\#) - \#(\#)$

ㄴ. 거성형 $M_2 \rightarrow [MHM_0]/\#(\#) - \#(\#)$

ㄷ. 상성형 I $R_2 \rightarrow [RM_1]/\#(\#) - \#(\#)$

ㄹ. 상성형 II $R_2 \rightarrow [\text{MH}M_0]/\#(\#) - \#(\#)^{14)}$

12) 안동·성주·대구 방언에서 상성형 I 과 상성형 II는 같은 조건에서 임의적으로 적용되지만, 안동 방언에서는 상성형 I 이 우세하다. 성주·대구 방언에서는 노년층의 발음에서는 상성형 I 이 우세하지만, 젊은층으로 갈수록 상성형 II가 우세하다. $[\dot{H}HM_0]$ 은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의 높이가 같고 수평조이다. $[\dot{H}HM_0]$ 에서 \dot{H} 는 그 길이가 1.6 모라 안팎이다. $[\text{MH}M_0]$ 에서 $[M]$ 은 중조의 음역 안에서 가벼운 상승조를 띤다. 다른 방언에 나타나는 $[\dot{H}HM_0]$ 과 $[\text{MH}M_0]$ 도 같은 발음으로 보면 된다.

13) 삼척 방언에서 상성형 I $[\ddot{H}M_1]$ 과 상성형 II $[RM_1]$ 은 같은 조건에서 임의적으로 적용되지만, I 의 빈도가 II의 빈도보다는 7 : 3 정도로 우세하다. 이리하여 I 을 으뜸 규칙으로 II를 버금 규칙으로 처리한다. 울진 방언과 삼척 방언의 $[\ddot{H}M_1]$ 에서 $[\ddot{H}]$ 는 1.6 모라 안팎의 길이이며, 고조의 음역 안에서 수평조로 발음되기도 하고, 고조의 음역 안에서 수평으로 발음되다가 뒤끝이 조금 올라가기도 한다.

14)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방언에서는 상성형 I 의 $[RM_1]$ 은 비교적 빈도

(25) 북청 방언의 음조형 실현 규칙

ㄱ. 평성형 $M_2 \rightarrow [MH_1]/\#$ —

ㄴ. 측성형 $H_2 \rightarrow [HM_1]/\text{—}\#$

(26) 육진·룡정 방언의 음조형 실현 규칙

ㄱ. 평성형 $M_2 \rightarrow [M_1H]/\#\text{—}\#$

ㄴ. 측성형 $H_2 \rightarrow [HM_1]/\text{—}\#$

5. 방점법의 발달 과정

성조를 높낮이 표상으로 적지 않고 방점으로 표시하는 방점법은 훈민정음 창제와 더불어 세종 임금의 창안한 것이다. 세종 임금이 명시적으로 말한 일은 없으나, 유효성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 틀림없는 듯하다.¹⁵⁾

(27) 訓民正音 解例 合字解 [우리말 옮김은 한글 학회]

平聲安而和(평성은 편안하고 부드럽다.)

上聲和而舉(상성은 부드럽고 들린다.)

去聲舉而壯(거성은 들리고 씩씩하다.)

평성을 「편안하고 부드럽다.」고 하여 거성 「들리고 씩씩하다.」와 대립시키고 있다. 평성에서 오는 느낌 「편안하고 부드럽다.」에서 「편안하다」는 것은 /ㄱㅓㅓㅓㅓㅓ/, /ㄱㅓㅓㅓㅓㅓ/와는 대조적으

가 낮고, 상성형 II [MHM₀]의 빈도가 높아져, 둘의 비율이 1 : 4 정도이다. 강릉시 중심 지역인 금학동 방언에서는 상성 I [RM₁]의 빈도가 상성형 II [MHM₀]의 빈도보다는 우세하여 나타나는 비율이 8 : 5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강릉 방언과 삼척 방언에서 [RM₁]의 첫 음절 [R]은 2 모라의 길이로 중조에서 고조에 걸쳐서 발음되기 때문에 사실상 [MH]와 같은 발음이다.

15) 유효성 이론은 언어학자가 이론화하기 전에 인간의 사물에 대한 인식에서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원리일 가능성이 많다.

로 /ㄱㄷㅈㅂ/에서 오는 예사로움에 비유할 수 있는 무표적인 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성은 평성에서 오는 느낌과 거성에서 오는 느낌을 그 차례대로 겸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표 성조를 □(0점)으로, 유표 성조를 그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거성(1점, ·□)과 상성(2점, :□)으로 표시한 것은 성조를 바라보는 마음의 바탕에 유표성 이론이 잠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당시 중국어의 북경 방언의 고평(55, 음평)과 고승(35, 양평)의 두 가지인데,¹⁶⁾ 우리말에서

- 16) 현대 중국어 북경 관화의 성조는 음평(55로 표시되는 고평조, 제1성), 양평(35로 표시되는 고승조, 제2성), 상성(215로 표시되는 강승조, 제3성), 거성(51로 표시되는 전강조, 제4성)의 4 가지가 있다. 허 웅(1972/1954)에서는 신 숙주의 『사성통고 범례(四聲通考凡例)』, 최 세진의 『번역 노걸대 박통사 범례(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 등의 여러 문헌을 통하여 15, 6세기의 북경 방언의 음운 체계와 4성은 현대 중국어 북경 관화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세진의 말을 들어 보자.

崔世珍의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傍點」조

漢音 去聲之呼 如國音去聲相同 故鄉漢皆一點 漢音平聲 全清次清 通攷則無點 而其呼與國音去聲相似 故反譯則亦一點 漢人之呼亦相近似焉 漢音上聲通攷則二點 而其呼勢同國音平聲之呼 故反譯則無點 漢人呼平聲 或有同上聲字音者焉 漢音平聲 全濁及不清不濁之音 通攷則無點 而其呼勢 同國音上聲之呼 故反譯則亦二點 漢音入聲有二音 通攷則皆一點 而反譯則其聲 直而高 呼如去聲者 一點 先低後厲而促急 少似平聲濁音之呼者 二點

[우리말 율김은 이 돈주(2003 : 350): 중국어음의 거성의 발음은 국어음(한자음)의 거성과 같으므로, 우리음과 중국음이 다 1점이다. 중국어음의 평성 중 전청과 차청은 통고에는 점이 없으니 그 발음이 우리한자음의 거성과 비슷하므로 반역에서는 역시 1점을 찍었다. 중국인의 발음 역시 이와 비슷하다. 중국어음의 상성은 통고에는 2점이지만 그 호세가 국어 한자음의 평성의 발음과 같으므로 반역에는 점이 없다. 중국 사람이 평성을 발음할 때 혹은 상성 자음과 똑같은 것이 있다. 중국어음의 평성 중 전탁음과 불청불탁음은 통고에는 점이 없지만 그 성세는 국어 한자음의 상성을 발음할 때와 같아서 반역에는 역시 2점이다. 중국어음 입성은 두 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에는 모두 1점이다. 그러나 반역에서는 그 성조가 곧고 높아서 거성처럼

이들과 비슷한 음조를 가진 성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평성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각각 거성과 상성이라고 이름하고, 중국어의 두 평성과는 전혀 다른 낮은 음조를 가진 우리말의 성조를 평성이라고 한 것은 우리말 토박이의 성조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말의 성조 체계를 설명함에 있어 유표성 이론과 2분법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최 세진의 ‘번역 노걸대 박통사 범례’이다.

(28)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四聲通解」下卷 卷末 附錄「國音」條)

凡本國語音 有平有仄 平音哀而安 仄音有二焉 有厲而舉 如齒字之呼者 有直而高 如位字之呼者 哀而安者爲平聲 厲而舉者(爲上聲: 이 돈주 보충) 直而高爲去聲爲入聲 故國俗言語 平聲無點 上聲二點 去國(去聲의 잘못: 이 돈주 2003 : 332) 入聲一點 [우리말 율김은 이 돈주 2003 : 332] 무릇 우리 나라의 어음은 平音과 仄音이 있으니 평음은 슬픈 듯 편안하고, 仄音은 둘이 있는데 거세고 들리는 것은 마치 ‘齒’ 자의 발음과 같고 곧고 높은 것은 ‘位’ 자의 발음과 같다. 슬픈 듯 편안한 것은 평성이요, 거세게 들리는 것은 (상성이며), 곧고 높은 것은 거성과 입성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속된 언어가 평성은 점이 없고, 상성은 점이 둘이며 거성과 입성은 점이 하나이다.]

위와 같이 우리말의 성조는 평성과 측성으로 나누어지고, 측성은 다시 상성과 거성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평성에 대해서는 그 느낌을 설명하는 말에 ‘편안하다’고 한 것은 무표적인 것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발음되는 것에는 1점을 붙이고, 처음에는 낮다가 뒤에는 세고 축급하여 마치 평성의 탁음의 발음과 얼마간 비슷한 자에는 2점을 찍었다.]

것이라 생각된다.

세종 임금과 최세진의 방점법과 유효성 이론에 따른 2분법은 글쓴이의 방점법 이론의 바탕이 되어 왔다. 현대 우리말 방언의 성조 체계를 기술하기 위하여 우리는 2분법을 더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성조의 일반화는 성조가 가진 중화력을 첫째 기준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미흡할 때는 각각의 성조들이 가지고 있는 음조의 특징을 고려하여 행한다.

- (29) ㄱ. 성조가 둘인 방언에서는 중화력이 없는 성조를 평성, 있는 성조를 측성이라 부른다. 평성은 □으로, 측성은 ·□으로 표시한다.
- ㄴ. 성조가 셋인 방언에서는 중화력이 약한 성조를 평성, 중화력이 강한 성조를 측성으로 부르되, 조치가 단순 수평인 것을 거성, 조치가 복잡한 것(곧 길거나, 뒤끝이 올라가거나, 길고 뒤끝이 올라가는 것)은 상성이라 부른다. 평성은 □으로, 거성은 ·□으로, 상성은 :□으로 표시한다.
- ㄷ. 성조가 넷인 방언에서는 중화력이 약한 성조를 평성, 중화력이 강한 성조를 측성으로 부르되, 조치가 단순 수평인 것을 거성, 조치가 복잡한 것(곧 길거나, 뒤끝이 올라가거나, 길고 뒤끝이 올라가는 것)은 상성이라 부른다. 또 거성이 둘일 때는 그 빈도나 분포로 보아 일반적인 것은 거성(또는 양거성), 빈도가 낮고 분포가 제한된 것은 음거성이라 부른다. 상성이 둘일 때는 그 빈도나 분포로 보아 일반적인 것은 상성(또는 양상성), 빈도가 낮고 분포가 제한된 것은 음상성이라 부른다, 평성은 □으로, 거성은 ·□으로, 상성은 :□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음거성과 음상성은 각각 ·回과 :回으로 표시한다.

(29)를 2분법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알기 쉽게 펼치면 다음과 같다.

(30) 성조를 방점으로 표시하는 법

평성(0점) □ (1모라, 수평조, 뒤따르는 위치에 성조 대립이 허용된다.)

거성(1점) ·□ (1모라, 수평조, 뒤따르는 위치에서 모든 성조가 중화된다.)

상성(2점) :□ (1.3모라 이상, 수평/상승조, 뒤따르는 위치에서 모든 성조가 중화된다.)

측성(1점) ·□ (1모라, 수평조, 뒤따르는 위치에서 모든 성조가 중화된다.)

음거성(1점) ·回 (1모라, 수평조, 뒤따르는 위치에서 모든 성조가 중화된다.)

음상성(2점) :回 (1.3모라 이상, 수평/상승조, 뒤따르는 위치에서 모든 성조가 중화된다.)

성조 체계가 (29)나 (30)보다 더 복잡한 경우도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글쓴이가 조사한 방언에서는 더 복잡한 경우는 없었다.

6. 방점법으로 표기한 대응 관계 자료

이 장에서는 방점법에 따른 성조 표기의 가시적인 장점을 보이려고 한다.

(31) 訓·훈민민正·정음품 序·뽕文문 (세종 어제 훈민정음)

나·랏 :말·쓰·미 中·동·國·국·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못
·디 아·니 흘·씩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저
·호·배 이·셔·도 ㅁ·춤·내 제 ·쁘·들 시·러 꺾·디 ·몬 흥·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위·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
여·뽕·字·종·를 鳴·ᄫᆞ·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나·겨 ·날·로

·뿌·매 便便安한·크 흥·고·저 흥 썩르·미니·라

(32) 훈민 :정·음 :서·문 (창원 방언·으로 읽·기)¹⁷⁾

나·랏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짜·와 서로 사무치·이·지 아
니 할·쎄 ·이·런 까·답·으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빠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시·러 펴·지 :문 할·놈·이 하·니·라
·내 ·이·를 :위·하·여 :어·여·빠 여·겨 ·새·로 ·수·물 여·달·짜·를
맹그노·니 :사·롭·마·다 ·하·여·금 :습·이 여·겨 ·날·로 ·썩·에 편
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중세 국어에서는 X·□·□·□Y처럼 1점(□)이 세 개씩 연속되
거나 X:□·□·□Y처럼 2점(:□) 뒤에 1점(□)이 둘 이상 연속되
는 것을 피하되(정 연찬 1977), 어절 안에서 첫 방점은 반드시 지
켜져야 한다는 강력한 경향 때문에 X·□·□·□Y은 X·□□·□,
YX·□·□□Y, X·□□□Y처럼 조정되고, X:□·□·□Y은 X:□□·
□Y, X:□·□□Y, X:□□□Y처럼 조정될 수도 있다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31)과 (32)의 방점을 대조하면 600년이라는 시간
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다. (31)은 표 (13)에 따라
0점(□)은 저조 [L]로, 1점(□)은 고조 [H]로, 2점(:□)은 상승조
[R]로 읽으면 15세기 국어의 발음이 될 것이고, (32)는 표 (13)
과 (19)에 따라 모든 어절들을 창원 방언의 성조형으로 바꾼 다
음 규칙 (20)을 적용하면 정확하게 창원 방언의 음조형이 도출
된다.

아래의 자료 (33)~(35)는 허 웅(1963/1972)에서 뽑은 자료이다.
표 (19)에 따라 모든 어절들을 창원 방언의 성조형으로 바꾼 다

17) 창원 방언 읍김에서 /:어·여·빠/, /사무치·이·지/, /하·니·라/는 그 뜻이
15세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각각 /·불·쌍·히/, /통하·지/, /: 많·니·라/로
바뀌야 하겠지만, 성조의 비교를 위하여 바뀌 넣지 않았다.

음 규칙 (20)을 적용하면 정확하게 김해 방언의 음조형이 도출된다.

(33) 허 웅(1972)의 중세 국어와 김해 방언 (완전 대응)¹⁸⁾

ㄱ. 가·마 — 가·매(頗)/HM/[HM]	가·슴 — 가·심(胸)
가·시 — 까·시(荊)	각·시 — 각·시(女)
감·즈 — 감자(甘子)	감·토 — 감·투(小帽)
거·리 — 거·리(街)	거·피 — 거·무(蛛)
거·불 — 거·복(龜)	거·쉬 — 꺼·시(蚯)
거·품 — 거·품(泡)	겨·슬 — 저·실(冬)
고·개 — 고·개(峴)	고·기 — 게·기(魚)
고·비 — 구·비(曲)	고·티 — 꼬·치(繭)
골·회 — 고·리(環)	곶·갈 — 꼳·갈(冠)
구·리 — 꾸·리(銅)	구·피 — 구·비(曲)
구·슬 — 구·슬(珠)	구·슈 — 구·시(槽)
귀·향 — 가·양(謫)	그·룻 — 그·룩(器)
과·별 — 가·빌(消息)	기·름 — 지·름(油)
ㄴ·새 — 가·새(剪)	꼭·뒤 — 꼭·디(後腦)
ㄴ. 가지 — 까지(茄)/H ² /[MH]	감탕 — 감탕
거·풀 — 꺼·풀(皮)	고·랑 — 고평(畎)
고·래 — 고·래(鯨)	고·초 — 꼬·치(椒)
구·들 — 구·들(炕)	구·무 — 구·녕(孔)
그·디 — 그·데(君)	그·디 — 그·데(君)
그르·ㅎ — 끌·타·기	ㄴ·르 — 가·리(紛)
ㄴ·술 — 가·실(秋)	ㄴ·울 — 고평(鄉)
ㄷ. 가·마·괴 — 까·마·구(烏)/H ² M/[MHM]	개·야·미 — 개·애·미(蟻)
거·러·치 — 걸·뱅·이(隸)	고·고·리 — 꼭·대·기(帶)
고·사·리 — 꼬·사·리(蕨)	곶·고·리 — 께·꼬·리(鶯)
광·조·리 — 강·지·리(茝)	구·렁·이 — 구·렁·이
그르·메 — 그림·자(影)	

18) 자료가 많아서 (33)~(36)에서는 /ㄱ/으로 시작되는 이름씨들 가운데 몇 개로 제한하였으며, 이하의 김해 방언의 방점 표시는 (29)와 (30)에 따라 글쓴이가 표시한 것이다. 김해 방언의 성조형은 표 (18)과 (19)의 밀양·창원·고성 방언과 같다. 김해 방언의 음조형 실현은 규칙 (20)을 따른다.

- ㄹ. ·가·지 — ·가·지(枝)/M²/[HH/MM] ·가지 — ·가·지(枝)
 ·구·름 — ·구·름(雲) ·구름 — ·구·름(雲)
 ·그·물 — ·그·물(網) ·그물 — ·그·물(網)
 ㄹ. :거·줏 — :거·줏/L²/[LM] :거줏 — :거·줏
 :겨·집 — :지·집(女) :겨집 — :지·집(女)

(34) 허 웅(1972)의 중세 국어와 김해 방언 (부분 대응)

- ㄱ. 거·우·루—거·울(鏡名)/HM/[HM] 거·우루—거·울(鏡名)/HM/[HM]
 가·르·마—질매(鞍)/H²/[MH] 가·르마—질매(鞍)/H²/[MH]
 가·운·디—가운·데(中)/H²M/[MHM] 가·운디—가운·데/H²M/[MHM]
 갈·며·기—갈매·기(鷗)/H²M/[MHM] 갈·며기—갈매·기/H²M/[MHM]
 갓·나·히—가시나·이(女)/H²M/[MH²M] 가·락·지—까·락·지/H²M/[MHM]
 ㄴ. ·ᄃ·물 — ·가·물·음(旱)/M³/[HHM]
 ㄷ. :가·치 — :ᄃ·ᄃ·이(鵲)/L³/[LM²] :가치—:ᄃ·ᄃ·이(鵲)/L³/[LM²]
 :굼·병 — :굼·병·이/L³/[LM²]

(35) 허 웅(1972)의 중세 국어와 김해 방언 (대응하지 않음)

- ㄱ. 그·려·기 — ·가·려·기(雁)/M³/[HHM]
 ㄴ. ·ᄃ·ᄃ·ᄃ — 그·ᄃ(陰)/H²/[MH] ·ᄃ·ᄃ·ᄃ — 그·ᄃ(陰)/H²/[MH]

아래 (36)에서 북청 방언과 중세 국어의 자료는 램지(1978)에서 얻은 것이고, 대구 방언의 자료는 김 차균(1999)에서 따온 것이다. 북청 방언과 대구 방언 자료의 방점은 글쓴이가 표시한 것이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평성(□)과 측성(·□)의 2성조 방언인 북청 방언과 일부 젊은층의 대구 방언의 방점 표상의 동일성과 성조 표상의 동질성(대칭성)을 이 두 방언의 자료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36) 북청 방언과 대구 방언 자료

ㄱ. 북청 방언		(20대) 대구 방언		중세 국어
①궁ᄃ(穴)	M[M]	궁ᄃ	H[H]	구무~궁ᄃ
꿩	M[M]	꿩	H[H]	꿩
꿩	M[M]	꿩	H[H]	꿩
꿩	M[M]	꿩	H[H]	꿩

②고랑	M ² [MH]	고랑	H ² [MH]	고랑
고래(鯨)	M ² [MH]	고래	H ² [MH]	고래
고을	M ² [MH]	고을	H ² [MH]	고을ㅎ
구녕(穴)	M ² [MH]	구녕	H ² [MH]	구무~궁ㄱ
구녕(穴)	M ² [MH]	구녕	H ² [MH]	구무~궁ㄱ
꺼풀	M ² [MH]	꺼풀	H ² [MH]	거풀
③진달래	M ³ [MH ²]	진달래	H ³ [M ² H]	진돌릭
초할리	M ³ [MH ²]	초하루	H ³ [M ² H]	ㅎㄹ
④고사·리	M ² H[MH ²]	고사·리	H ² M[MHM]	고사·리
광지·리	M ² H[MH ²]	광주·리	H ² M[MHM]	광조·리
가마·귀	M ² H[MH ²]	까마·기	H ² M[MHM]	가마·괴
피꼬·리	M ² H[MH ²]	피꼬·리	H ² M[MHM]	곶꼬·리
⑤가·슴	MH[MH]	가·슴	HM[HM]	가·슴
가·시	MH[MH]	까·시	HM[HM]	가·식
거·미	MH[MH]	거·미	HM[HM]	거·믹
거·북	MH[MH]	거·북	HM[HM]	거·븍
구·슬	MH[MH]	구·슬	HM[HM]	구·슬
구·시<구유>	MH[MH]	구·시	HM[HM]	구·슈
그·룻	MH[MH]	그·룩	HM[HM]	그·룻
고·깎	MH[MH]	꼬·깎	HM[HM]	곶·깎
⑥아·으·리	MH ² [MHM]	아·호·레	HM ² [HM ²]	아·호·래/아·호래
아·지·미	MH ² [MHM]	아·지·매	HM ² [HM ²]	아·즈·미/아·즈미
웅·텡·이	MH ² [MHM]	웅·더·이	HM ² [HM ²]	웅·텡·이/웅·텡이
웅·텡·이	MH ² [MHM]	웅·디·이	HM ² [HM ²]	웅·텡·이/웅·텡이
⑦·값(值)	H[H]	·값	M[M]	·값
·강(江)	H[H]	·강	M[M]	·강
·갯(笠)	H[H]	·갯	M[M]	·간
·귀	H[H]	·귀	M[M]	·귀
·글	H[H]	·글	M[M]	·글
⑧·가·물	H ² [HM]	·가·물	M ² [HH/MM]	·ㄱ·물/·ㄱ물
·가·물	H ² [HM]	·가·물	M ² [HH/MM]	·ㄱ·물/·ㄱ물

·가·지(枝)	H ² [HM]	·가·지	M ² [HH/MM]	·가·지/·가지
·구·름(雲)	H ² [HM]	·구·름	M ² [HH/MM]	·구·름/·구름
·그·물	H ² [HM]	·그·물	M ² [HH/MM]	·그·물
⑨·무·지·개	H ³ [HM ²]	·무·지·개	M ³ [HHM]	·므·지·개/·므지·개
·할·애·비	H ³ [HM ²]	·할·애·비	M ³ [HHM]	·하·나·비
·할·애·비	H ³ [HM ²]	·할·애·비	M ³ [HHM]	·하·나·비/·하·나·비
ㄴ. 북청 방언				
·가(邊)	H[H]	·가	M[M]	(:가) :ㄱ ㄹ
·감(柿)	H[H]	·감	M[M]	(:감) :감
·골(谷)	H[H]	·골	M[M]	(:골) :골
·곰	H[H]	·곰	M[M]	(:곰) :곰
·가·치(鵲)	H ² [HM]	·까·치	M ² [HH/MM]	(:까·치) :가·치
·계·집(女)	H ² [HM]	·지·집	M ² [HH/MM]	(:지·집) :겨·집
·사·마·귀	H ³ [HM ²]	·사·마·기	M ³ [HHM]	(:사·마·기) :사·마·귀

(37)~(49)의 밀양 방언, 안동 방언, 창원 방언의 자료는 김 차균(2003)에서 가져온 것이다. 먼저 (37)에서는 밀양 방언과 안동 방언에서 평측형의 방점 표상과 성조 표상의 동일함을 볼 수 있다. 두 방언의 음조형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경남 방언과 경북 방언의 차이를 나타낸다.

(37) 밀양 방언

모(苗)

H[MH]

안동 방언

모

H[ḡ, H]¹⁹⁾

19) /H/는 안동 방언과 밀양 방언에서 다 가끔 [ḡ]로 나타나기도 한다. [ḡ]는 [10:¹²] 곧 [10] 등급으로 발음되다가 뒤끝이 [12] 등급으로 올라가며, 1.6 모라 안팎의 길이이다. [M]은 [10]의 장음인 [10:]이며, 그 길이는 1.6 모라 정도의 길이를 가진 수평조이다. [ḡ]은 [4:⁸] 정도의 완만한 오름조로 1.6 모라 정도의 길이를 가진 음조이다. 안동 방언의 1음절 평성 /H/는 으뜸 변이음조 [ḡ] 이외에 버금 변이음조 [H]가 있다. [H]는 [H]와 같이 고조로 발음되다가 뒤끝이 [H]의 음조 구역

목	H[MH]	목	H[Ĥ]
밭	H[MH]	밭	H[Ĥ]
배(梨)	H[MH]	배	H[Ĥ]
나·라	HM[HM]	나·라	HM[HM]
노·래	HM[HM]	노·래	HM[HM]
가·무·치	HM ² [HM ²]	가·무·치	HM ² [HM ²]
며·느·리	HM ² [HM ²]	며·느·리	HM ² [HM ²]
미·숫·가·리	HM ³ [HM ³]	미·숫·가·루	HM ³ [HM ³]
툭·니·바·끼	HM ³ [HM ³]	툭·니·바·꾸	HM ³ [HM ³]
음·악·발·포·해	HM ⁴ [HM ⁴]	음·악·발·표·회	HM ⁴ [HM ⁴]
나물	H ² [MH]	나물	H ² [MH]
녹디	H ² [MH]	녹디	H ² [MH]
가운·데	H ² M[MHM]	가운·데	H ² M[MHM]
결배·이<거지>	H ² M[MHM]	결배·이	H ² M[MHM]
까마·구	H ² M[MHM]	까마·구	H ² M[MHM]
깨애·미<개미>	H ² M[MHM]	깨애·미	H ² M[ĤM]
당나·구	H ² M[MHM]	당나·구	H ² M[MHM]
바끝·주·인	H ² M ² [MHM ²]	배끝·주·인	H ² M ² [MHM ²]
사래·기·눈	H ² M ² [MHM ²]	싸래·기·눈	H ² M ² [MHM ²]
초하로	H ³ [MH ²]	초하루	H ³ [M ² H]
가시나·아<계집애>	H ³ M[MH ² M]	가시나·아	H ³ M[M ² HM]
꼬랑데·기<꼬리>	H ³ M[MH ² M]	꼬랑데·이	H ³ M[M ² HM]
꽃보오·리	H ³ M[MH ² M]	꽃보오·리	H ³ M[M ² HM]
개똥벌거·지	H ⁴ M[MH ² M]	개똥벌거·지	H ⁴ M[M ² HM]

(38)에서는 /나·가·다/류의 변동 평성형의 굴곡형들 가운데서 경남 방언(밀양 방언과 창원 방언)에서 상성형으로 나타나는 어형들이 안동 방언에서는 음거형(·回·□, ·回·□·□, ·回·□·□·□, ·回·□·□·□·□)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김 차균(2003)에 따르면 안

안에서 조금 내려가면서 축급하게 끝남을 가리킨다. [H]와 [Ĥ]의 길이는 차이가 거의 없다.

동 방언의 음거형은 창원 방언의 상성형의 음조형([LM], [LMM], [LMM̃], [LMMM̃])과 같으나 첫 음절의 길이가 창원 방언에서는 1.3 모라 안팎이지만, 안동 방언에서는 1모라인 점이 약간의 차이이다.

(38) 밀양 방언	안동 방언	창원 방언	씨끝의
나가·다	나가·다	나가·다	표준말
/H _{L-1} ² ·M/	/H _{□-1} ² ·M/	/H _{L-1} ² ·M/	풀이
①:나·가·네	·ㄴ·가·네	:나·가·네	<네(서술)>
:나·가·는	·ㄴ·가·는	:나·가·는	<는>
:나·가·도	·ㄴ·가·도	:나·가·도	<아도>
:나·간·다	·ㄴ·간·다	:나·간·다	<는다>
:나·갔·다	·ㄴ·갔·다	:나·갔·다	<았다>
:나·가·는·데	·ㄴ·가·는·데	:나·가·는·데	<는데>
:나·가·더·라	·ㄴ·가·드·라	:나·가·더·라	<더라>
:나·갈·라·마	·ㄴ·갈·라·마	:나·갈·라·모	<으려면>
:나·갈·라·만	·ㄴ·갈·라·만	:나·갈·라·몬	<으려면>
:나·잡·니·더	·ㄴ·가·니·더	:나·잡·니·더	<읍니다>
:나·잡·디·더	·ㄴ·가·디·더	:나·잡·디·더	<읍디다>
:나·가·신·다	·ㄴ·가·신·다	:나·잡·신·다	<으신다>
:나·가·더·라·도	·ㄴ·가·드·래·도	:나·가·더·라·도	<더라도>
:나·가·십·니·꺼	·ㄴ·가·시·니·꺼	:나·가·십·니·꺼	<으십니까>
:나·가·시·이·꺼·네	·ㄴ·가·시·이·께·네	:나·가·시·이·꺼·네	<으시니까>
:나·갔·는·잡·다	·ㄴ·갔·는·갯·다	:나·갔·는·잡·다	<왔는가보다>

(39)~(47)에서는 임의의 평성형과 풀이씨의 측성형(곧 거성형 ·□₁, 상성형 :□₁, 음거형 ·□₁)이 결합할 때, 창원 방언에는 순행평성동화가 필수적인 데에 대하여, 안동 방언에서는 반드시 중화규칙을 따름을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방언들 사이의 차이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각 방언에 해당하는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와 있으면 그것이 필수적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음을 이 자료

들에서 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행평성동화 규칙 (48)의 적용 뒤에 다음에 말할 (49)와 같은 내용의 끝 음절 축성화가 적용됨을 참고하기 바란다.

(39) 창원 방언	창원 방언	안동 방언	안동 방언
하·다/H _{M-1} ·M/	공부하·다	하·다/H _{M-1} ·M/	공부하·다
한	공부한	한	공부한
하·고	공부하·고	하·고	공부하·고
하·기	공부하·기	하·기	공부하·기
하·까	공부하·까	하·까	공부하·까
하께·에	공부하께·에	하께·에	공부하께·에
하·라·꼬	공부하·라·꼬	하·라·꼬	공부하·라·꼬
하·라·모	공부하·라·모	하·라·머	공부하·라·머
하·이·께	공부하·이·께	하·이·께	공부하·이·께
(40) 창원 방언	창원 방언	안동 방언	안동 방언
ㄱ. 가·고	먼지가·고	가·고	먼저가·고
ㄴ. 가·라·꼬	먼지가·라·꼬	가·라·꼬	먼저가·라·꼬
ㄷ. 나가·고	잘나가·고	나가·고	잘나가·고
ㄹ. 나가·고	더잘나가·고	나가·고	더잘나가·고
ㅁ. 나가꼬·마	먼지나가꼬·마	나가꼬·마	먼저나가꼬·마
(41) 창원 방언	창원 방언	안동 방언	안동 방언
기본굴곡형	순행평성동화	기본굴곡형	중화 규칙
·빠·진·다	팔빠진·다	·빠·진·다	팔·빠·진·다
·빠·진·다	다리빠진·다	·빠·진·다	다리·빠·진·다
·빠·진·다	판따리빠진·다	·빠·진·다	반따리·빠·진·다
(42) 창원 방언	창원 방언	안동 방언	안동 방언
기본굴곡형	순행평성동화	기본굴곡형	중화 규칙
가·다/H _{M-1} ·M/	안동가·다	가·다/H _{M-1} ·M/	안동가·다
·간·다	안동간·다	·간·다	안동·간·다
·가·나	안동가·나	·가·나	안동·가·나
·가·네	안동가·네	·가·네	안동·가·네
·가·도	안동가·도	·가·도	안동·가·도

·가·서	안동가·서	·가·서	안동·가·서
·갔·다	안동갔·다	·갔·다	안동·갔·다
·갑·니·꺼	안동갑니·꺼	·가·니·꺼	안동·가·니·꺼
·갑·니·더	안동갑니·더	·가·니·더	안동·가·니·더
·갑·디·더	안동갑디·더	·가·디·더	안동·가·디·더
·가·는·데	안동가는·데	·가·는·데	안동·가·는·데
·가·더·라	안동가더·라	·가·드·라	안동·가·드·라
·가·신·다	안동가신·다	·가·신·다	안동·가·신·다
·가·더·라·도	안동가더라·도	·가·드·라·도	안동·가·드·라·도
(43) 창원 방언	창원 방언	안동 방언	안동 방언
기본굴곡형	순행평성동화	기본굴곡형	중화 규칙
<u>하·다</u> /H _{M-1} ·M/	<u>공부하·다</u>	<u>하·다</u> /H _{M-1} ·M/	<u>공부하·다</u>
·하·네	공부하·네	·하·네	공부·하·네
·하·는	공부하·는	·하·는	공부·하·는
·하·는·데	공부하는·데	·하·는·데	공부·하·는·데
·하·더·라	공부하더·라	·하·드·라	공부·하·드·라
·하·시·이	공부하시·이	·하·시·이	공부·하·시·이
·하·신·다	공부하신·다	·하·신·다	공부·하·신·다
·합·디·꺼	공부합디·꺼	·하·디·꺼	공부·하·디·꺼
·합·디·더	공부합디·더	·하·디·더	공부·하·디·더
·하·시·지·예	공부하시지·예	·하·시·지·요	공부·하·시·지·요
·하·더·라·도	공부하더라·도	·하·드·라·도	공부·하·드·라·도
·하·는·가·베	공부하는가·베	·하·는·게·나	공부·하·는·게·나
·하·는·갑·다	공부하는갑·다	·하·는·겻·다	공부·하·는·겻·다
(44) 창원 방언	창원 방언	안동 방언	안동 방언
기본굴곡형	순행평성동화	기본굴곡형	중화 규칙
: <u>얼·다</u> /L·M/	보리얼·다	: <u>얼·다</u> /M·M/	보리·얼·다
: <u>얼·네</u>	보리얼·네	: <u>얼·네</u>	보리·얼·네
: <u>얼·는·다</u>	보리얼는·다	: <u>얼·는·다</u>	보리·얼·는·다
: <u>얼·는·데</u>	보리얼는·데	: <u>얼·는·데</u>	보리·얼·는·데
: <u>얼·더·나</u>	보리얼더·나	: <u>얼·드·나</u>	보리·얼·드·나
: <u>얼·더·노</u>	보리얼더·노	: <u>얼·다·아</u>	보리·얼·다·아
: <u>얼·더·라</u>	보리얼더·라	: <u>얼·드·라</u>	보리·얼·드·라

:얼·어·도	보리얼어·도	:얼·어·도	보리·얼·어·도
:얼·었·다	보리얼었·다	:얼·었·다	보리·얼·었·다
:얼·습·니·더	보리얼습니·더	:얼·니·더	보리·얼·니·더
:얼·습·디·더	보리얼습디·더	:얼·디·더	보리·얼·디·더
(45) 창원 방언	창원 방언	안동 방언	안동 방언
기본굴곡형	순행평성동화	기본굴곡형	중화 규칙
<u>하·다</u> / $H_{M-1} \cdot M$ /	<u>공부하·다</u>	<u>하·다</u> / $H_{M-1} \cdot M$ /	<u>공부하·다</u>
:할·래	공부할·래	:할·래	공부·할·래
:할·라·꼬	공부할라·꼬	:할·라·꼬	공부·할·라·꼬
:할·라·모	공부할라·모	:할·라·머	공부·할·라·머
:할·라·몬	공부할라·몬	:할·라·먼	공부·할·라·먼
:할·라·카·모	공부할라카·모	:할·라#카·마	공부·할·라#카·마
(46) 창원 방언	창원 방언	안동 방언	안동 방언
기본굴곡형	순행평성동화	기본굴곡형	중화 규칙
<u>가·다</u> / $H_{M-1} \cdot M$ /	<u>안동가·다</u>	<u>가·다</u> / $H_{M-1} \cdot M$ /	<u>안동가·다</u>
:갈·래	안동갈·래	:갈·래	안동·갈·래
:갈·라·꼬	안동갈라·꼬	:갈·라·꼬	안동·갈·라·꼬
:갈·라·몬	안동갈라·몬	:갈·라·만	안동·갈·라·만
:갈·라·나	안동갈라·나	:갈·라·나	안동·갈·라·나
:갈·라·카·거·등	안동갈라카거·등	:갈·라·꼬·등	안동·갈·라·꼬·등
(47) 창원 방언	창원 방언	안동 방언	안동 방언
기본굴곡형	순행평성동화	기본굴곡형	중화 규칙
:나·가·야	앞서나가·야	:나·가·야	앞서·나·가·야
:나·갔·다	앞서나갔·다	:나·갔·다	앞서·나·갔·다
:나·갈·라·모	앞서나갈라·모	:나·갈·라·만	앞서·나·갈·라·만

(39)~(47)에서 본 창원 방언의 순행평성동화는 낱말이 결합될 때 일어나는 것이므로 외적 순행평성동화라 할 수 있다. 진주 방언에서는 외적 순행평성동화가 창원 방언과 같은 방법으로 일어남은 물론이고, 이미 하나로 결합된 하나의 음운론적 낱말 안에서도 순행평성동화가 일어난다. 후자를 내적 순행평성동

화라 부른다. 그것을 규칙화하면 (48)과 같다. 내적이건 외적이건 간에 순행평성동화가 일어난 뒤에는 조건만 이루어지면 끝음절 축성화가 일어난다.

(48) 진주 방언의 내적 순행평성동화

$$\square^n \cdot \square^m \rightarrow \square^{n+m} \quad (\text{단, } n \geq 2)$$

규칙 (48)의 적용 뒤에는 끝음절 축성화 규칙 (49)가 적용된다.

(49) 진주 방언의 끝음절 축성화

$$\square_3 \rightarrow \square_2 \cdot \square \quad (\text{단, } n \geq 2)$$

아래의 (50)에서는 창원 방언과 진주 방언에 외적 순행평성동화가 일어났음을 본다.

(50) 창원 방언	창원 방언	진주 방언	진주 방언
기본굴곡형	순행평성동화	기본굴곡형	중화 규칙
·빠·진·다	팔빠진·다	·빠·진·다	팔빠진·다
·빠·진·다	다리빠진·다	·빠·진·다	다리빠진·다
·빠·진·다	판따리빠진·다	·빠·진·다	판따리빠진·다
·가·도	안동가·도	·가·도	안동가·도
·가·서	안동가·서	·가·서	안동가·서
·갸·다	안동갸·다	·갸·다	안동갸·다
·갸·니·꺼	안동갸니·꺼	·갸·니·꺼	안동갸니·꺼
·갸·니·더	안동갸니·더	·갸·니·더	안동갸니·더

다음은 진주 방언에서 내적 순행평성동화가 임의적으로 적용되지만 창원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자.

(51) 창원 방언	창원 방언	진주 방언	진주 방언
당나·구	당나·구	당나·구	당나·구
삼한·사·온	*삼한사·온	삼한·사·온	삼한사·온
가을·구·름	*가을구·름	가을·구·름	가을구·름
당나·구·다	*당나구·다	당나·구·다	당나구·다
당나·구·새·끼	*당나구새·끼	당나·구·새·끼	당나구새·끼
당나·구·새·끼·다	*당나구새끼·다	당나구·새·끼·다	당나구새끼·다
당나·구·까·지	*당나구까·지	당나·구·까·지	당나구까·지
당나·구·라·도	*당나구라·도	당나·구·라·도	당나구라·도
게·기·잡·기	*게기잡·기	게·이·잡·기	*게이잡·기
노·래·부·르·기	*노래부르·기	노·래·부·르·기	*노래부르·기
(52) 창원 방언	창원 방언	진주 방언	진주 방언
고래잡·고	고래잡·고	고래잡·고	고래잡·고
당나·구·잡는·다	*당나구잡는·다	당나구·잡는·다	당나구잡는·다
공부하·라·모	*공부하라·모	공부하·라·모	공부하라·모

최근에 음운학계에서 생겨난 여러 운율 이론들이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단순히 기계적인 조작을 통해서 표면적인 운율형을 생성해 내거나, 제한된 표면형을 두고 그것이 최적형인 까닭이 정해진 제약의 순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어긴 것이냐로 결정된다고 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어느 한 언어의 진정한 음운론적인 표상이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장에 주어진 많은 자료를 통하여 방점법은 운율형을 적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작된 이론이 아니라, 대립과 중화의 기능에 바탕을 둔 자연스러운 이론이며,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방언 성조들의 자료를 일관된 방법으로 적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설득력 있는 이론임을 우리는 수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득력은 방점 표기가 단순히 밖으로 나타나는 물리적인 자료를 적는 것이 아니라 음운론에서 가장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대립과 중화를 시각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7. 음운론적 표상의 자연성과 인위성

우리는 3장~6장을 통하여 방점 표상, 성조 표상, 음조 표상 등의 존재를 보았다. 이들 가운데서 음조 표상은 우리가 발화 행위를 통해서 말하고 귀로 듣는 구체적인 표상으로 음성적인 층위의 표상이며, 동시에 자연적인 존재에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음조 표상은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음조 표상의 정확한 기술 없이는 성조론은 학문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방점 표상과 성조 표상은 음운론적인 표상이다. 이 둘 가운데서 방점 표상은 대립과 중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음향적인 표상인 음조 표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음운론에서 자음과 모음(곧 분절음)의 체계는 그것들로 이루어지는 연쇄체를 통한 대립과 중화에 바탕을 두고서 형성되는 것과 같이, 방점 표상은 우리가 분석하기 이전에 우리의 인식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체계이다.

마지막으로 음운론적인 층위의 높낮이(고저) 표상인 성조 표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먹는·다/[MHM]와 /먹·었·다/[HMM]에서 [MHM]와 [HMM]를 대조해 보면 /먹-/이라는 동사 어간은 그 기저 성조를 /M/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H/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다. /먹-/의 성조를 /H/로 보는 사람은 /먹·었·다/[HMM]에서 /먹-/이 [H]로 나타나는 것에 대

해서는 당연한 실현(default)으로 볼 것이고, /먹는·다/[MHM]에서 /먹-/이 [M]으로 발음되는 것에 대해서는 규칙에 의해서 /H/가 [M]으로 발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먹-/의 성조를 /M/으로 보는 사람은 /먹는·다/[MHM]에서 /먹-/이 [M]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실현(default)으로 볼 것이고, /먹·었·다/[HMM]에서 /먹-/이 [H]로 발음되는 것에 대해서는 규칙에 의해서 /M/이 [H]로 발음되었다고 할 것이다.

/삼천/[MH]과 /삼·십/[HM]에서 /삼/에 대해서도 꼭 같은 방법으로 그 기저 성조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주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비길 정도로 맞설 수도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방언 자료나 음운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에 조금 우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다.

또 /·밥·먹·고/[HHM]에서는 /·밥/이 [H]로 발음되는 데에 대하여 /콩·밥/[HM]에서는 /·밥/이 [M]으로 발음되는 것을 보고, /·밥/의 성조는 /H/라는 주장도, /M/이라는 주장도 성립할 수가 있다.

/·밥/의 성조를 /H/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밥·먹·고/[HHM]에서 /·밥/이 [H]로 실현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것이고, /콩·밥/[HM]에서 /·밥/이 [M]으로 발음되는 것은 규칙에 의하여 /H/가 [M]으로 발음된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밥/의 성조를 /M/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콩·밥/[HM]에서 /·밥/이 [M]으로 실현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것이고, /·밥·먹·고/[HHM]에서 /·밥/이 [H]로 발음되는 것은 규칙에 의하여 /M/이 [H]로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장도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또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외에도 /·밥/도 /떡-/도 다 [H]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기저 성조를 /H/로 하되 기저 표시에서 분절음과 맺는 관계가 다르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²⁰⁾

성조 표상을 정할 때 성조를 고조와 저조의 2단 체계로 볼 것이냐, 3단 체계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그 주장들이 항상 팽팽하게 맞서듯이 성조 층위의 높낮이 표상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늘 대답이 있어 왔고, 지금도 두 가지 이상의 주장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어느 쪽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본 짧은 논설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은 높낮이 표상으로서의 성조 표상은 언어학자의 인위적인 가공물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표상이 아니며, 따라서 그 존재가 성조론에서 필수적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글쓴이의 관점에서 성조 표상(음운론적인 층위에서 높낮이 표상)은 방점 표상과 음조 표상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양자를 중재하는 표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표상은 국어 성조사의 서술에서나 여러 방언 성조 체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표상이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표상은 아니라고 본다. 보기를 들어 설명하면, □□·□·□·□→/H²M³/→

20) 김 경란(1998)이 이에 속한다. 그의 관점에서는 대구 방언에서 글쓴이의 평성, 거성, 상성에 대응하는 성조를 모두 /H/로 보되, 글쓴이의 평성에 대응하는 /H/는 기저에서 음절핵이 되는 모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거성과 상성에 대응하는 /H/는 기저에서 구별되지 않고 표면에서 분류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 거성과 상성에 대응하는 /H/는 떠돌이 성조(floating tone)으로 보았다. 김 경란(1998)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구 현욱(2003)을 참조.

[MHMMM]처럼 3단계로 성조와 음조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방점 표상에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음조 표상을 도출하는 방법 곧 □□·□·□·□→[MHMMM]처럼 2단계로 나아가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2단계로 하면 어떤 면에서 다소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조 표상에 대한 논쟁은 사라질 것이다.

글쓴이의 처지에서 보면 첫 단계인 방점 체계는 대립과 중화를 나타내는 진정한 음운 표기이기 때문에 국어 성조론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셋째 단계인 음조 표상은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모든 국어 성조 학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기 체계가 나와야 된다고 본다. 국어 성조 학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음조의 표기 체계는 우리에게는 국제음성학회의 IPA(국제음성부호)와 같은 편리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간 단계인 성조(높낮이) 표상은 통일될 수도 없고, 통일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각각의 성조론자가 어떤 하나의 체계를 택했을 때, 자신의 학설을 원만하게 펼치기 위하여 그것을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8.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다른 이론에 대한 방점법의 타당성을 증명하되, 방점법의 다른 이론들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성을 보이는 대신에 방점법에 의한 성조의 기술은 대립과 중화에 의한 진정한 성조의 본질을 밝히고 올바른 성조 체계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리하여 국어 성조사의 체계적인 기술을 가능하게 하며, 방언들 사이의 표면적인 혼란스러운 차이보다는 질서정연한 음

운론적인 층위의 체계적인 공통성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서 표면적인 차이를 혼란이 아닌 조화로운 다양성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3.1절에서는 음향학적인 실질에 일차적인 바탕을 둔 성조 체계의 설정으로는 성조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일차적으로 대립과 중화의 기능에 바탕을 두고 성조를 평성(무표 성조)와 유표 성조로 나누되, 유표 성조가 둘 이상인 3성조 체계에서는 조치(調值)를 최소한 고려하여(곧 단순 수평조이나 그보다 더 복잡하냐에 따라) 거성과 상성으로 나누며, 4성조 이상의 체계에서는 다시 분포가 일반적인 것이냐, 또는 제한된 것이냐에 따라 제한된 것은 그 첫 음절의 조치에 따라 음거성, 음상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워진 성조에 세종 임금의 방점 표기 방법을 받아들여 우리말 방언의 표기를 하면, □(평성), ·□(거성), :□(상성), ·回(음거성), :回(음상성)으로 된다.

그리고 중화 위치에 오는 단순 수평 1모라의 성조인 측성은 중화성조이지만 거성과 상보적인 분포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하여 ·□으로 표시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세워진 성조 체계로 표기된 자료들은 현대의 모든 방언 성조 방언들의 공통된 표기 체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대응 관계가 바로 나타나며, 중세 국어에서 현대의 방언으로 체계적인 변화가 바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성조의 분석 및 분류 방법 자체가 바로 방점법이라는 성조 이론인데, 현대의 어떠한 최신 성조 이론도 우리말의 성조 연구를 위해서는 방점법보다 나은 것이 발표된 일이 없고, 방점법은 일본어 등, 강력한 중화력에 따라 성조의 연결 방법이 극히 제한되는 언어의 성조 체계를 원만하게 다룰 수 있는 잠재

력이 있음을 각주에서 지적했다.

3.2절에서는 방점을 각 방언에 따른 높낮이 표상으로 바꾸기 위한 대응 관계 표를 제시하고, 우리말 전체에 공통되는 방점형을 방언에 따른 성조형으로 옮기는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성조형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질성을 보여 줄을 보았다. 그 까닭은 각각의 음운론적인 낱말(대개는 어절) 안에서 평성과 측성의 구성 방법과 그 수가 같으며, 최초로 나타나는 측성의 위치가 같기 때문이었다. 3.1절과 3.2절 전체를 통하여 삼척 방언에서는 거성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2음절 이상의 거성형은 그 음조형 $[MHM_0]$ 이 평측형 가운데 한 구성원인 $\square^2 \cdot \square_1$ 의 음조형과 같아짐으로써 거성형의 존재 바탕이 약화되어 경상도나 함경도의 방언들에 비교할 때 비성조 방언으로의 변천이 더 많이 진행되었고, 강릉 방언에서는 거성형과 평측형 가운데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square_2 \cdot \square^n$ 과 거성형이 모두 $[MHX]$ (여기에서 X 는 H_0M^n)으로 합류되었기 때문에, 성조형이 $\square \cdot \square_1$, $\square \square^m \cdot \square^n$, $:\square_1$ 으로 통합되어 삼척 방언보다 더욱 비성조 방언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4장에서는 성조 표상에서 우리가 귀로 듣고 인식하는 음조 표상을 도출하는 규칙을 소개했다. 다른 성조 이론들에서는 이장에서 도출되는 음조형이 성조 분석과 체계 설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방언들 사이의 대응 관계와 성조사의 체계적인 기술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 상위의 표상인 방점 표상과 성조형 표상을 제거하고 보면 음조형의 다양성은 조화로 보이기 보다는 무질서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장에서는 세종 임금에서 유표성 이론과 성조 분류의 2분법은 암묵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되어 있

다는 증거가 나타남을 보았고, 최 세진에 와서 이 두 가지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었음을 보았고, 글쓴이(김 차균)의 여러 논저를 통하여 세종 임금과 최 세진의 유효성 이론과 성조 분류의 2분법에 다시 중화와 대립을 끌어들이므로써 방점법이 강력한 성조 이론으로 성립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훈민정음 서문과 그것을 방점법을 이용해서 방언으로 옮긴 자료를 비롯해서 많은 구체적인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방점법이 성조 이론으로 확립되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 7장에서는 대립과 중화를 나타내는 방점 표상은 국어 성조론에서 필수적인 표상이며, 음조 표상은 발화 행위를 통해서 산출되는 자연적인 존재이며, 귀로 듣는 음조 인식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국어 성조학자들에게 공통으로 인정을 받는 통일된 표기 체계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방점 표상과 음조 표상의 중간적인 층위에 존재하는 높낮이 표상(성조 표상)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체계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선택한 체계이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방점 표상에서 직접 음조 표상을 도출해 낼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했지만, 성조사의 기술이나 방언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나, 여러 방언 성조들의 관계와 차이를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나, 또는 각각의 방언의 방점 표상에서 음조 표상의 도출을 더 원만하게 설명하기 위해 높낮이 표상의 체계도 필요함을 말했다.

다만 각자가 만들어 내거나 선택한 높낮이 체계(성조 체계)는 자기 이론의 전개에 모순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또한 지적했다.

〈참고 문헌〉

- 곽 충구. 1994.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론』(국어학 총서 20). 국어학회. 태학사.
- 구 현옥. 2003. 『국어 성조 기술 방법 비교 연구』, 한글 260. 한글 학회. 5~40쪽.
- 김 봉국. 1999. 『삼척 지역어의 성조 연구』, 국어 연구 150. 국어연구회.
- 김 세진. 2004. 『우리말 방언 성조 체계 설정 방법』, 어문 연구 44. 어문연구학회. 79~124쪽.
- 김 주석·최 명옥. 2001. 『경주 속담·말 사전』.
- 김 주원. 1991. 『경상도 방언의 성조 기술 방법—표기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시론』, 어학 연구 27권 3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 주원. 2000. 『영남 방언 성조의 특성과 그 발달』, 어문학 69. 91~115쪽.
- 김 차균. 1993. 『방점법』, 언어학 제15호. 한국언어학회. 145~167쪽.
- 김 차균. 1998. 『나랏말과 겨레의 슬기에 바탕을 둔 음운학 강의』. 태학사. 24~29, 337~413쪽.
- 김 차균. 1999. 『우리말 방언 성조의 비교』. 도서출판 역락. 21~42, 657쪽.
- 김 차균. 2001. 『고성 방언과 성주 방언 성조의 비교』, 한글 253. 한글 학회. 5~101쪽.
- 김 차균. 2002ㄱ. 『국어 방언 성조론』. 도서출판 역락.
- 김 차균. 2002나. 『영·호남 방언 운율 비교』. 도서출판 역락. 22, 50~55쪽.
- 김 차균. 2002ㄴ. 『안동 방언과 밀양 방언 성조 비교』, 어문 연구 39. 어문연구학회. 5~99쪽.
- 김 차균. 2002ㄷ. 『창원 방언과 안동 방언 성조 비교』, 우리 말글 25. 우리말글학회. 1~80쪽.
- 김 차균. 2002ㄹ. 『밀양 방언과 안동 방언 성조 비교』,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323~492쪽.

- 김 차균. 2003. 『영남 방언 성조의 비교』. 도서출판 역락. 15~840쪽.
- 김 차균 · 고 광모 · 김 주원 · 정 원수. 2000. 『영남 방언과 호남 방언의 운율 비교』, 어문 연구 34. 어문연구학회. 57~128쪽.
- 박 종덕. 2000. 『안동 서후 지역어 음운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박 숙희. 2003. 『동사 운율구의 내부 구조와 음조 실현』, 어문학 80. 한국어문학회. 77~104쪽.
- 신 기상. 1999. 『동부 경남 방언의 고저 장단 연구』. 도서출판 월인. 263~296쪽.
- 이 돈주. 2003. 『한중 한자음 연구』. 태학사.
- 이 동명. 2003. 『경남 방언 차용어 성조 연구』, 언어 제28권 3호. 451~486쪽.
- 이 문규. 1997. 『대구 방언의 성조 중화 현상』, 문학과 언어 제18집.
- 이 문규. 1998. 『성조소 기술 방법론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 연구 15. 언어과학회. 213~231쪽.
- 이 문규. 2002. 『대구 방언과 안동 방언의 성조 비교 연구』, 어문학 77. 한국어문학회.
- 이 호영. 1993. 『서울말과 경상도 방언의 운율 유형론』, 언어학 15. 한국언어학회. 353~382쪽.
- 이 호영. 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임 석규. 2003. 『동남 방언의 성조소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37~69쪽.
- 전 학석. 1993. 『함경도 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회령, 경성, 함주말의 음조를 중심으로—』. 태학사.
- 정 연찬. 1977. 『경상도 방언의 음조 연구』(국어학 총서 5). 국어학회. 탑출판사.
- 정 원수. 1994. 『경북 방언의 복합 동사 형성에 나타나는 성조 변동 연구』, 한글 224. 한글 학회. 73~94쪽.
- 조 정환. 2000. 『韓國語昌寧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体系を以て中心に—, 韓國語アクセント叢論』, 도쿄대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부속 문화 교류 연구 시설 동양 제민족 언어문화 부문. 21~49쪽.

- 차 재은. 1999. 『중세국어 성조론』. 도서출판 월인.
- 최 명옥. 1998. 『현대 국어의 성조소 체계』, 국어학 31. 국어학회. 23~52쪽.
- 최 영미. 2000. 『삼척 지역어의 운소 체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 대학원.
- 허 응. 1970. 『국어 음운학』(개고신판). 정음사.
- 허 응. 1963/1972. 『중세국어 연구』. 정음사.
- 福井玲(후꾸이). 2000. 『韓國語諸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について, 韓國語アクセント叢論』, 도쿄대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부속 문화 교류 연구 시설 동양 제민족 언어문화 부문. 1~20쪽.
- Kim Gyung-ran(김 경란). 1988. 『The Pitch-accent System of the Taegu Dialect of Korean with Emphasis on Tone Sandhi at the Phrasal Leve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Hanshin Publishing Co., 98~109쪽.
- Pike, Kenneth L. 1948. *Tone Languag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Ramsey, S. R. 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A Descriptive and Historical Study*.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탑출판사.

김 차균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언어학과 교수

전자우편: gimcg@cuvic.cnu.ac.kr

<abstract>

Which is the More Important between Side-dot Representation and the Tonemic Representation in Korean Tonology

Gim Cha-gyun

For these several years, I have developed side-dot theory, ‘Bang-jeom-beob’ for describing Korean tonology through supplementation of an influential method initiated by King Sejong and improved by Sejin Choi, a Korean competent linguist of 16th century. Side-dot theory was based on the markedness theory at first. King Sejong classified the tones of Middle Korean into three, one unmarked tone —‘pyeongseong, a plain tone’— and two marked tones ‘cheukseongs, contour tones’ called geoseng and sangseong tone respectively. Using a dichotomy, Sejin Choi classified MK tones into pyeongseong tone and cheukseong tone firstly. And he classified, in turns, the latter into geoseng and sangseong tone. Geoseng tone had phonetically simple level pitch, but sangseong tone had long rising pitch.

King Sejong indicated the three tones, pyeongseong, geoseng and sangseong tone with □, ·□, and :□ respectively. King Sejong’s classifying is available for all of the present Korean dialects, too.

The side-dot theory ‘Bang-jeom-beob’, which I strengthened, is a functional tonology covering markedness theory, opposition, and neutralization. While a pyeongseong tone allows contrast of another pyeongseong and a cheukseong in the following position within a phonological word, a geoseng or a sangseong does not allow contrast of any tones in present Korean dialects. In other words, a pyeong-

seong neutralizes a geoseng and a sangseong into a cheukseong in the following position. And a cheukseong neutralizes any tone into a cheukseong in the following position within a phonological word.

Due to weak neutralizing force of the pyeongseong tone and strong neutralizing force of the geoseng and the sangseong tone, the kind of sequences of tones, that is, tonological patterns, in a phonological word are extremely restricted. Thus any dialect with two tone system has only one complex tone pattern 'pyeongcheuk pattern', and any dialect with three tone system has three tonological patterns: a geoseng pattern, a sangseong pattern and pyeongcheuk pattern. While the former two are simple patterns, the latter is complex pattern. Any simple pattern consist of only one kind regardless of the syllable number in the phonological word. However, the complex 'pyeongcheuk' pattern has the same members as the syllable number in the phonological word. For example, five syllable tonemic words consists of five complex patterns, one departing pattern and one rising pattern. five complex patterns are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square \cdot \square^4$), $\square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square^2 \cdot \square^3$), $\square \square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square^3 \cdot \square^2$), $\square \square \square \square \cdot \square$ ($\square^4 \cdot \square$), and $\square \square \square \square \square$ (\square^5). The departing pattern and rising pattern 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5$) and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cdot \square$ ($:\square^5$) respectively.

The side-dot representations may seem to be abstract, but they are real tonological entities based on contrast and neutralization. And surface pitch forms, as we can hear, are representations realized through tonological rules. Therefore surface pitch forms are real as well as important representations. On the contrary, the intermediate tonemic representations are only arbitrary convention. In /먹·고, məg-go, $\square \cdot \square$ /[HM] 'eat and' and /먹는·다, məg-nin-da, $\square \square \cdot \square$ /[MH M] '(be) eating', we can see the pitch alternation of the verb stem 'məg'. In this case someone choose underlying tone of \square (pyeongseong).

seong ‘unmarked tone’) as /H/, and another as /M/. And in /삼·십, sam-sib, □·□/[HM] ‘thirty’ and /삼천, sam-c^hən, □□/[MH] ‘three thousand’, we can also find the pitch alternation of the morpheme /sam, □/. In the same way, someone choose underlying tone of □ (pyeongseong ‘unmarked tone’) as /H/, and another as /M/. In /삼·백, sambæg, □·□/[HM] ‘three-hundreds’ and /·백·년·에, bæg-nyəne, ·□·□·□/[HHM] ‘in one hundred years’, we can find the pitch alternation of the morpheme /bæg, ·□/. In this case someone choose underlying tone of ·□(pyeongseong ‘unmarked tone’) as /M/, another as /H/. Thus while someone choose underlying tone of □ as /M/ and ·□ as /H/, another, □ as /H/ and ·□ as /M/.

Thus we conclude that the side-dot representations are the more real important representations, but the intermediate tonemic representations are only arbitrary convention. Therefore we are able to skip the tonemic representations in Korean tonology and to derive the surface pitch representations from the side-dot representations directly.

- * **Key words:** side-dot theory, pain tone, departing tone, rising tone, yin-departing tone, yin-rising tone, tonological pattern, side-dot representation, pitch representation, pitch form realization rule.

〈논문 받은 날: 2004. 6. 28.〉

〈실기로 한 날: 2004. 7. 26.〉